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0 5/6

경남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천리안)
<http://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저불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통용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통권 75호 | 2000년 5/6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
 피낸곳 한국보육교사회/피낸이 이윤경·이기원/
 뒤은이 이경나, 김희정/피낸날 2000년 5월 1일

2 권두언	5월을 준비하며,	이기원
4 보육정책1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이윤경
5 보육정책2	2000년 보육사업안내에 관한 제안	이윤경
7 보육정책3	국공립시설의 민영화 요구에 대한 의견	함미혜
12 특집	5월에 생각하는 어린이의 인권	이윤경
17 특집	보육교사 10년차의 이야기	박말신
18 특집	"넌네네"	조정옥
19 특집	도란도란 두런두런	편집부
23 교육제언	바깥에아 중심의 장애 통합교육 프로그램 1서장은	
32 현장교육1	소리지르기-소리지를 때 이런 느낌이야!	이상옥
35 현장교육2	우리 손으로 꾸미요,	주영
38 현장소식1	보육교사회 신입회원의 날 풍경	함순옥
39 현장소식2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설명회를 다녀와서	김진희
41 현장소식3	한국보육교사회라...	김유경
42 현장소식4	광주보육교사회 두 번째 회원강좌를 듣고 나서	김경아
43 어린이와 건강	내 아이의 치아는 보석!!	김태성
44 인물탐방기	공동대표 갈루쓰신 이윤경 선생님을 찾아서,	임미란
47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바깥놀이 가보세요,	주예민
49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대구 디딤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51 육아일기	나현이의 육아일기 -1개월~2개월	김연숙
54 좋은 그림책 소개	민수아 힘내	
55 세상읽기	4·13 총선을 보며	박창익
57 사어배 정보망	오른발, 왼발은 어린이 문학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임미란
58 견학기	이탈리아 견학기3	고은숙
61 한국보육정보연구소	킨더가르텐의 교사들	김영영
67 목소리1	국공립 보육시설 민영화 추진에 대하여	홍꽃무리
68 목소리2	부산, 대구, 광주지부에 다녀왔습니다. 이경나	
70 광고	'OO한국보육교사회 현장연구 공모 안내	
71 알림란	편집부	
73 보육계 통영	편집부	
75 소식과 소식	편집부	
80 편집부에서	편집부	



연생풀과 야생화
 놀이와 이해하는
 실로 연결되어있으면 합니다.



현장교육1



현장소식1



한국보육정보연구원



| 권 두 연 |

5월을 준비하며.

이기원 · 본회 공동대표

5월이다.

올해 노동계의 큰 이슈 중 하나가 5일제 근무였다. 그러나 노동절은 고사하고 아직도 법정공휴일인 5월 5일도 안 쉬는 근로조건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이 대부분인 어린이집에 있다보면 그나마 국가에서 정해진 아이들을 위한 잔치상도 못 받아 먹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요 며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과외합헌 결정과 맞물려 교육부 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의 발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의 지면과 뉴스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부처 장관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으나 백년을 내다봐야 할 교육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지 며칠도 안되 사교육비 지원이라는 정책대안이라니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답하다.

만일 이런 사회풍토라면 아마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이미 집안의 경제순이 될 것이다.

사실 사교육 부담의 문제는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대상인 영유아기의 보호, 교육, 복지

서비스를 보더라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너무도 많다. 이미 보육정책의 출발점이 수요에 따른 공급의 양적 확충을 우선시 함으로써 첫단추를 끼었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도, 망설이지 말고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최근 논의가 있다.

공보육의 상징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영화 추진 방안이다. 이 방안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국공립시설의 민영화나 전체 국공립시설의 의견반영이 아닐지라도 현재의 논의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 민영화 추진 이유의 궁극적 목적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 전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이었다면 그 논의 이전에 사회 현실에 밀려 미뤄두었던 보육과제부터 공론화 시켜 보자.

실제 지원시설인 국공립시설이 가지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역시 공보육의 테두리에 있지 않아 정책대안에서 빠져 나와있던 민간보육시설도 보육사업의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함께 나누어 가야겠다.

노동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 나라에 태어나 아동을 기를 수 있음을 축하하고.

가끔씩 궁금하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현실에 대해서 본회 뿐만 아니라 부모, 현장의 교사와 시설장, 관련단체들이 정말 가야할 보육의 주요 과제와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현장에서는 그러도 더디고 미약한지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5월이다.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5월은 감사의 달임에는 틀림없다.

노동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 나라에 태어나 아동을 기를 수 있음을 축하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들의 날이라고 즐거워 하겠지. 그리고 그 날이 지나면 우리를 위한 날이 1년 후라도 꼭 다시 오길 손꼽아 기다리겠지.

어른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주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고맙고 또 미안한 5월이다.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

이윤경 · 변희 공동대표

아래의 글은 지난 2월 28일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에 참석 후 보건 복지부에 본회에서 제안한 제안서 전문입니다.

1. 교사 대 아동비율에 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으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예처럼 0세 - 1:2 / 1세 - 1:5 / 2세 - 1:7 / 3세 - 1:10 - 15의 비율이 현실화 된다면 교사는 보다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영아보육 활성화 방향에 관하여

복지부는 영아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의 영아보육률을 높이는 방안과 중산층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전환 또는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적으로 많은 민간 시설을 적극 이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의 특성상 아동의 가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숫적우위를 차지하는 민간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영아는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시설에서 보육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기때문에 가정보육시설등 국공립보다 시설규모가 작은 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영아보육을 활성화 시키는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① 영아전담시설의 기준선을 하향조정하여 (현재 상시 영아 30인이상 보육에서 20인 - 15인으로 조정 하여) 민간시설이 영아전담시설로 지원을 받기 용이하도록 하고 ② 영아보육료를 실질적으로 책정하여 시설이 영아보육을 기피하지 않도록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여주며 ③ 전담시설이 아니더라도 영아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민간 시설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관하여

현재 보육교사의근무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00)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에게만 적용되

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시설의 경우 9시간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민간시설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면 전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교사와 민간시설 교사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에 관하여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기간중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모두에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이나 휴가등으로 교사가 시설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출산, 교육등으로 교사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은 교사의 처우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설 내 아동의 보육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 2

2000년 보육사업안내에 관한 제안

이윤경 · 변희 공동대표

아래의 글은 '2000년 보육사업 안내'에 대해 보육정책위 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복지부에 제안한 내용 전문입니다.

1. 방학제 도입에 관하여

보육아동의 건강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에 방학실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방학이란 아동에게는 한정된 공간을 떠나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학 기간에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있으며 이런아동을 돌보기 위하여 교사중 몇몇은 방학기간동안이라도 근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에 상응하는 휴가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이 교사의 재교육 기회로 활용된다면 재교육을 받은 일수는 방학 일수에서 제외하여 재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별도의 휴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

교육의 경우 연가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000년 보육사업 안내 119페이지 참조).

2. 산재보험에 관하여

현재 상시종사자 5인이상의 보육시설일 경우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00년 보육사업안내 68페이지) 그런데 구체적인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고, 질병에 관한 항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보육교사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영아교사의 경우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많아 무릎등 관절이상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후두염, 인후염등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아이들과 하루종일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해야하는 직업적 특성에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밖의 여러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질병에 관한 항목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종사자 건강검진에 관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에서는 취업시 채용신체검사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든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질병에 매우 취약한 점을 생각하면 어린이집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모든 정규직, 임시직 종사자에 대해 철저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건강검진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관하여

2000년 보육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있어 저소득층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6.7%으로 잡았습니다. 99년도에는 3인이하 가정이 92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95만원으로 액수에서는 늘었지만 99년도의 금액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원으로 고민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이 실보육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고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단가 기준보다 높은 보육료를 받고 있는 시설에 아동을 보낼 경우 차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 중 많은 수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99년 9월 현재 국공립시설은 99,89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민간시설은 474,49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00년 보육사업안내 14p) 그런데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서 거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민간 시설의 경우 국가기준단가보다 높은 보육료를 받아야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시설에 보내는 많은 아동의 경우 국공립시설의 경우보다 보육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은 실제 시설에서 받고 있는 실보육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시설의 민영화 요구에 대한 의견

황미애 · 본회의 보육정책위원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전국 국공립 시설장대회'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역할정립 방안'에 대한 주제로 '국공립 민영화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국공립보육시설의 민영화 추진 방안'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본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정리한 의견을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국공립시설의 민영화 추진방안의 기본내용

본회의 의견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영화 요구의 내용을 간략히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배경

새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 보육 마인드] 정책이 요구됨, 즉 편리하고 저렴하며, 양질의 국민 보육서비스를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자유적 민간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됨.

- 국가 전반에 걸친 저비용·고효율 정책의 추세
-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국영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재구조화 추세
- 세계적 추세가 정부의 국영기업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방향
- 지방분권화에 따른 보육사업의 정치 논리화
- 보육에 대한 국민 기대 요구의 일반화·보편화·생활화
- 보육시설의 경쟁력 강화
- 수요자 요구 충족을 위한 보육시설의 책임경영 요구 증대
- 다양한 보육 서비스 형태의 요구
- 보육 평등화 요구의 증대
- 양적 보육정책에서 질적 보육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욕구
- 21세기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통일 한국의 인간상 형성 필요

문제점

1. 주인의식의 부재
2. 자율경영 부재
3. 신분보장 불확실
4. 보육질 저하
5. 투자욕구 저하

6. 보육수요자의 요구충족 미흡
7. 보육의 전문성 유지 곤란
8. 보육사업의 특성화 유도 곤란
9. 정부의 보육사업 중점 육성책 마련 곤란
10. 정부의 보육사업 중복 투자

개선과제

1. 민영화 추진
2. 정년제 폐지

자율적 민간중심의 보육환경의 요구성

자율적(?) 민간중심의 보육환경이 과연 편리, 저렴, 양질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98년 12월 복지부의 위탁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발표한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국공립시설은 운영관리나 영유아기 프로그램, 부모만족도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세부항목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 가정시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몇가지 원인을 제시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국공립'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의 질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국가의 지원과 감독에 힘입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훈련을 잘 받은 교사들이 아동발달에 적합한 학습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료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다 시설과 질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잃는다.

아울러 국공립이 과연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요자의 욕구를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때에,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영아보육이나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재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시설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본다면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공립시설이야말로 아들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발표문에서는 국공립시설이 민간에서 못하는 경쟁력, 재산성이 떨어지는 보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민영화를 통해 다양한 보육욕구를 대변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시설로도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할때 오히려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여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과연 공기업의 민영화가 복지분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민영화의 또다른 근거는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세계적 추세이다.

공기업은 관료사회 특유의 비효율적 조직구조 및 관리와 권위적 업무처리방식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창의성도모로 인한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 민영화가 추구되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이윤창출이 비

현실적인 복지(보육)가 과연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보육은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에 의해 발전하고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껏 국가와 지자체에게 끊임없이 여러 형태의 지원들을 요구하고 받아냈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진 보육이 아니라 공보육, 바로 그것이다.

복지(보육)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개발과 배분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예를 들어 단지 민간시장에 내맡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리라 본다. 시장경제구도에 맡긴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거나 더욱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든 보사연의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체제로 떠어든 보육은 이윤의 극대화(시장경제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를 위해 결국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력이 낮거나 급수가 낮은 보육교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낳을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보육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영화 가능성으로서 외국의 예를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외국사례를 하나의 예시로 들 때에는 일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과정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활용되는 차원이지만, 어떤 기대치의 확산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그네들과 우리의 사는 사회구조나 구성원들의 성격(국민성, 민족성...), 관습, 제도,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다른 양상을 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의 국공립추의 민영화논의는 자체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당장 실시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도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동의 문제를 너무 단시일내에 급박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육사업의 정치 논리와 일반화·보편화·생활화

민영화주장의 배경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지방분권화에 따른 보육사업의 정치논리화로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간의 비일관성, 관계자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또한 보육사업이 일반화·보편화·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가주도형이 아니라 자율적인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정부가 보육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전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보육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보육모델의 제시나 현실화가 국공립에게 주어진 또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이미 이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복지는 각 정권이 들고 나오는 최우선의 정책으로 정착하고 있고 그만큼 복지가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가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활동성과들을 일궈냈다. 이제 우리가 보육정책이나 행정에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을 인식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하여 우리가 바람직한 보육제도나 행정의 길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보육공동화, 누구를 위한 공동화인가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숫적으로 절대우세를 보이는 민간시설에서 아동별지원대상 아동수도 당연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애초 저소득층자녀 중심의 보육을 목적으로 한 국공립시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끔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다니는 민간시설보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국공립시설에 정부지원의 많은 부분을 할당한다는 것은 보육지원에서 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통해 국공립 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면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자칫 이 주장은 민영화된 국공립시설이 민간시설로 된 후에도 계속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육의 평등화란 시설간의 규모나 재정의 평등화가 아니라 보육대상아동이 보육서비스의 심한 질적 차이로 피해보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절대보육요구대상이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간 질적 평등화와 그를 위한 평등한 보육지원, 시설지원으로 결국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동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보육료의 지원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 재교육과 처우 개선, 아동보육프로그램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의 개발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즉, 시설규모나 유형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주요의식과 주연은 다른 예기

민영화는 결국 '내 것'이 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다.

사기업에서도 경영권이 개인소유, 즉벌경영에서 전문경영인체제로 변화하는 마당에 동기상에 내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어야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은 시대를 거스르는 의식이다. 오히려 사심이 없는 전문경영자(위탁자)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설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이윤(보육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고 또 기업(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공립 시설장들의 자체설문조사를 보면, 순수위탁시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55%)이 정부가 건물·부지 제공 후 시설장에게 불하하는 형태에 대한 의견(35.2%)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공립시설장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도 조금 의아스럽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비록 통과되진 않았지만 작년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제기하였던 시설평가인증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실시된다면 시설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시설별 부족한 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차원을 높이도록 고무, 격려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고려된다면 지금보다 더 투명한 보육시설의 운영의 초래와 발전이 기대될 수 있을 것 같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기가 쉽다?

우선적으로 국공립시설장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일선행정의 과도한 감시와 일관성없는 보육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보육행정 담당자들의 일관성없는 업무관라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등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않고 한 해를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감사나 행정업무가 과다하고 비효율적이라면 적절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공립시설장들과 일

선행정의 보육담당자들간의 머리를 맞댄 고민과 의견교환으로 꼭 필요한 항목 외에는 시설장의 자율재량권을 부여토록 하고 대신 시설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비리적발시 강한 제재를 하도록 한다든가 재위탁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의 강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다면 서로에 대한 불신도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신분 보장과 정년제 폐지

국공립시설장들의 신분의 불안정은 '위탁'이라는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재위탁 선정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가? 특별한 비리가 없는 이상 자동 재위탁으로 가는 현실로 볼 때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만 지자체별로 현저하게 차이나는 사안(정년연령이나 위탁기간, 횟수 제한의 유무나 그 횟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자체와의 논의, 그리고 전국적인 합의점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장들이 신분보장이 바로 정년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런 발상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부분, 교육이나 보육은 사회의 발달상을 그 어느 분야보다도 더 신속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문구에서도 드러나듯이 변화하는 세대에 발빠르게 수용, 대처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면, 제도교육에서 담보하기 이전의, 사회를 더 빨리 흡수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담당자들은 어쩌면 교육 담당자들보다 더 빠른 사회적응을 우선조건으로 하여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경력있는 전문가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지만 반면에 사회의 변화를 제때에 감지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비록 일선교육현장의 반발로 불발되었지만 교육부의 정년단축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장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건의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보육분야 자체가 타직종에 비해 턱없는 보수와 처우를 받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장들의 처우를 현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은 어디까지나 아동복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생산하는데 있어서도 그 시행과정이나 결과가 과연 사업의 주대상인 아동에게 어떠한 효과와 영향을 주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애초 국공립의 민영화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솔직히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국공립시설장들이 민영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과 그들이 주장하는 민영화가 과연 유일한 혹은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따랐다.

정리하건대, 국공립시설의 민영화논의는 그저 국공립시설장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장기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당장 급한 시설수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산된 시설의 중복과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효과가 절감되는 결과로 인해 지금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공립시설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서 우리 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위상을 새로이 한 차원 더 높이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적어도 한세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생산해내는 '보육'이 되길 바란다. 정말 보육의 최대수혜자인 아동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는가에 대한 확신과 타당성있는 근거들이 제시되는 정책제시가 필요한 때이다.



5월에 생각하는 어린이의 인권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 가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온 지도 여러 해가 되었다.

가족내에서도 특히 어린이는 아직 자신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를 생각한다는 많은 주장들이 실제로 어린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왔는지는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어린이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성명서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5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일도 다반사이다. (우리네 아이들) 5월호를 맞아 특집으로 실리는 이 글도 일회적인 특집 기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 실린 내용이 일회적인 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투표권도 없고 경제활동도 못한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린이, 상품의 소비자로써만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한때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어린이에 관한 국제 협약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더불어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세계 인권 선언(1948년)'을 살펴 보자.

세계 인권 선언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출신 민족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그 밖의 지위 등을 불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개별적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어른이든 아동이든 그 능력과 사고수준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24년 국제아동구호기금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5대 원칙을 포함한 '제네바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은 국제연맹의 추인을 받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국제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하나의 주제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이후 유엔의 1948년 아동 권리 선언이 있기까지 약 25년동안 국제연맹 회원국들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써 자리를 지켰다. '제네바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할 의무를 인정하고 인종, 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고려를 넘어서서 이를 선언하며 의무로써 수락한다.
- 1.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이 아동에게 주어지야 한다.
- 2. 배고픈 아동에게는 음식을, 병든 아동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 3. 잘못에 빠진 아동은 교화되어야 하고, 고아와 집없는 아동은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 4. 아동은 재난시에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 5. 아동은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6.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널리 인류 동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엔은 '국제 권리 장전'과 '아동의 권리 선언'을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세계 인권 선언'보다 11년 뒤인 1959년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선언'에 그칠 뿐 국제 문서로써 구속력을 갖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선언의 밑바닥에 깔린 핵심적인 관점은 '제네바 선언'에서 보여지듯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곧,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아동을 여러 면에서 약한 존재이니까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1959년의 선언에서 아동과 관련된 '시민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는 '이름과 국적에 대한 권리'(원칙 3: 아동은 출생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부여받아야 한다.)가 추가 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맞는다. 이후 60년대 후반과 70년대를 통해 북부 선진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발전적이고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보호'를 넘어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고, '권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1979년 '국제 아동의 해'의 선포로 아동문제에 관한 방대한 정보와 관심이 시작되면서 결국 유엔은 '세계 아동의 해'의 10주년을 맞이하여 1989년 11월 20일에 '아동의 권리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를 대하는 태도와 국제인권법의 성장이 무르익는 가운데 '선언'을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 한 것은 폴란드 정부였다. 협약의 기초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크게 정부, 민간단체, 유엔 전문기구로 분류되는데 초기에 각국 정부들은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오히려 아동 관련 민간 단체들이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협약의 기초과정에 유례없는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률적인 어려운 단어들을 고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 조약을 소개하겠다.



쉬운 말로 바꾼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조항 1 |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 조약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에요.

조항 2 |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간에, 한국어를 쓰든지 외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지 아닌지,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조약에 적혀 있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항 3 |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해요.

조항 6 | 모든 사람은 우리 어린이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조항 7 |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가 있어요.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조항 9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보살피지 않을 때이겠지요.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조항 10 |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조항 11 |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조항 12 |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해요.

조항 13 |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만 해요.

조항 14 |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조항 15 |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되지요.

조항 16 |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일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조항 17 |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어요.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해요.

조항 18 |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해요.

조항 19 |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돼요.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해요.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어요.

조항 20 |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조항 21 |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만 해요.

조항 22 | 우리가 망명자(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람)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조항 23 |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조항 24 | 우리는 건강 할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해요.

조항 27 | 우리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해요.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 주어야 해요.

조항 28 |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초등교육은 무료이어야 하고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에 가야 해요. 우리는 또한 중학교에도 갈 수 있어야 해요.

조항 29 |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조항 30 | 소수집단(미국의 인디언이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등)의 어린이에게도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조항 31 |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조항 32 |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해요.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만 해요.

조항 33 |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해요.

조항 34 |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 없어요.

조항 35 |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어요.

조항 37 |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룰 수가 있지요.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어요. 최후의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돼요.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조항 38 |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15살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돼요.



조항 39 |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조항 40 |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해요.

조항 42 | 모든 어른들과 모든 어린이들은 이 조약에 관해 알아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해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에는 모두 52개의 조항이 있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른들과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어른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이 듣는 곳에서 신체적 약점을 별명으로 만들어 부르거나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요구나 질문을 무시하거나 아이와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괴로움이나 슬픔, 스트레스, 분노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인권을 소중하게 지켜 주어야 할 권리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3살의 어린 나이로 카펫공장의 어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하다가 공장주들이 고용한 암살자에게 암살당한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동 운동가 '이크발 마시'를 생각해 본다. 월드컵을 보고 열광하는 어른들의 뒷편에서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고사리 손을 놀리고 있을 저개발 국가 5-14살의 어린 노동자들을 생각해 본다. 세계 곳곳에서 카펫을 짜거나, 커피열매를 따거나, 석탄을 캐고 사탕수수를 자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을 생각해 본다. 1999년 6월 17일 국제노동기구는 "최악의 형태의 어린이노동 근절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협약과 선언이 나온다 해도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는 협약의 당사자인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린이의 인권은 보호되기 어렵다.

어른과 어린이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1978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된 다음의 선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하겠다.

〈한 사회의 아동에 대한 처우는 그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수준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감과 미래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다가올 세대를 위한 인간다운 조건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각 개별 국가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사실이다.〉

◆ 참고로 한 책: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내일을 여는 책 / 1997년 5월 발행 / 7,000원



보육교사 10년차의 이야기

-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육의 길 -

박말신 · 광주전남, 노닐도날어린이집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러하듯 보육교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힘들게, 어렵게 하여 이 산을 겨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 넘어야 하고 또 넘고, 넘고...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네~" ('하준'의 임오근 목소리로)

우선 도담도담 어린이집의 10년을 얘기해야겠다.

1990년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일할 권리를 어린이에게 보호, 교육받을 권리를"이라는 기치아래 회원분들의 땀으로 도담도담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 문을 닫을 고비를 2번 넘겼고, 현재는 전남대학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으며 70여명의 영, 유아를 보육하는 어엿한 보육시설이 되었다. 10여명의 교직원 아침 6시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일개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쉼 없이 여기저기에서 역할을 다해내고 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일은 노가다(?)보다 힘들다.

영아반은 영아라서, 유아반은 유아라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이 항상 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을까? 내가 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나? 자문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기쁨의 일이, 보람된 일이 우리에겐 있다. 뽀뽀이반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유아가 어엿한 초등학교생이 되어 생활하는 걸 볼 때, 졸업 후 몇년이 지나서 아이를 만날 때...

"이렇게 나는 사람을 키우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무엇보다 보람있는 일이야." 라고 가끔 되뇌인다.

그리고 보육의 일을 하며 함께 했던 인간 관계가 소중하다. 우연히 타지역에서 아이의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꽃을 피울 때, 동료들과 야유회 가서 신나게 놀 때, 한국보육교사회 수련회 때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지를 만날 때 등... 더불어 광주지역에서는 일본 오사카 "희망의 문" 보육시설과 지속적 만남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가 보육의 길이 아니라면 느끼지 못할 기쁨이리라.

그리고 나에게 항상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 '정성(精誠)'이라는. 보육인으로서가 아니라 인생선배로서 같이 나누고 싶다. 좋은 일의 성사는 좀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정성을 많이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것이. 마음과 마음이 모여져서 바람의 기운이 가득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종교적 얘기가 아니라 나의 경험에서 얻은 진리다. 일도 정과 성을 들여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을 키우는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화가 나면 화나는 목소리로, 기쁘면 명랑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정과 성을 다하고 싶다. 아니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괜찮았어." 생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싶다. 아니 우리 모두 그러길 바란다. "어서 가세~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네~" (임오근 목소리로)

전국보육교사의 건강을 바라며...



“넌네네”

조정옥 · 전역, 금암어린이집

“개꿀 개꿀... 개꿀 개고르르”

늦은 밤인데 저 개구리는 잠도 없나 보다. 아이들과 유채꽃 보러 천변에 다녀오고 아직 자기물건 하나 챙기기도 미숙한 소망반(5세) 아이들과 그럴듯한 씨름한번 거루고 난 오늘 하루... 천국이란 생각이 앞선다(히히).

금암어린이집에 처음 왔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내 삶이어야겠다 생각을 다짐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을 감히 내뱉지 못하겠다.

처음 천사반 아이들(18개월부터 있었음)을 맡았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었는지 모른다. 18개월된 아이에 대한 지식도 없었으면서...

천사반 아이들과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밥을 먹다가도 냄새가 난다 싶으면 놀고 있는 아이들의 바짓속을 다 들춰보고 다니고, 시간됐다 싶으면 쉬통을 들고 다니며 오줌누게 하고... 그렇게 천사반 아이들과 나는 천사반 선생님이 아닌 조금 큰 아이로 천사반 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천사반 시절(?)의 가슴 시린 얘기하나.

어느 점심시간, 우리 천사반 아이들 모두가 의자(스티로폼 블록)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의 뒤통을 완전히 때어놓았던 화려한 경력(?)의 말쑥꾸러기 성국이가 밥을 들고 다니며 먹다가 미끄럼틀에 떨어버림과 동시에!! 몸놀림이 자연스럽지 못한 승혁이는 용아를 해놓고도 아무 말없이 밥만 먹고 있고, 어린이집에 온지 며칠 되지 않은 인호는 열심히 울어대느라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머지 천사반 아이들은 밥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밥먹고 있는 아이들 밑으로 떨어진 밥풀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 그 순간, 유난히 말이 없었던 예진이가 화장지와 물휴지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와 나에게 건네는게 보였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다음, 울었지... 당연히. 예진이한테 너무 고마워서 울고, 아이들 앞에 두고 무슨 신세타령인가 싶어서 울고... 선생님도 아니고 “넌네네”라고 말하며 선생님이 울든지 말든지 자기 할 일(?)하기에 바쁜 아이들을 보며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지 싶었다. 작은 아이들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 내 실수.

그때는 서럽지만 하던 것이 지금은 또 듣고 싶다. “넌네네”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의 짹짹거리는 소리들을...

선생님이 별건가? “넌네네”라 불리어도 아이가 “넌네네”를 엄마보다 더 좋아하고 “넌네네”는 아이를 자기 지식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면 “넌네네”는 맛있는 “넌네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이들을 위한 내 삶이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 글을 통해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했다면 그것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도란도란 두런두런

변집부

지난 4월 19일 늦은 저녁 어린이집 일과를 마친 올리브, 호랑, 땡땡(안전지부의 그 땡땡 선생님은 아닙니다. 아빠(걸코 남자가 아닙니다).

동강아지 선생님이 본회 사무실에 모여 두런두런 나누었던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얘기들을 소개합니다.

동강아지 | 해마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는데 올해는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땡땡 | 글썽, 선물은 필요없고, 그냥 하루 기념하면서 쉬었으면 좋겠어.

올리브 | 맞아, 어떤 곳은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진짜 하루 쉬다고 들었어. 진짜 부럽다... 썸!

아빠 | 좋겠다.

땡땡 | 근데, 선생님들은 올해 어린이날에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해?

아빠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몇년 전에 탕탕볼에 교사들이 매직으로 그 아이한테 짧은 글을 써서 선물했어.

올리브 | 우리는! 우리네 아이들! 알 페이지에 나오는 어린이권리 선언문 있잖아?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했는데.

아빠 | 어린이권리 선언문 해주면 좋겠다. 집마다 걸어놓고 엄마, 아빠도 볼 수 있게 하면 볼 때마다 다시 아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좋겠다.

땡땡 | 우리는 졸업할 때 아이 작품 과일을 선물하면서 그 앞에 끼워 주는데...

동강아지 | 아유, 누가 보육교사 아니랄까봐. 또 금방 애들 얘기나오네. 오늘은 스승의 날 얘기하는 건데 어느새 어린이날로 얘기가 돌아가버렸어.

아빠 |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나봐. 모든 얘기는 애들 얘기로 통한다야.

스승의 날 꽃 갖고 오잖아. 한번은 어떤 집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만들어서 스승의 날에 갖고 왔는데 그걸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거야. 마음이 딱 느껴져.

땡땡 | 우리도 그런 적 있어. 한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진짜 글씨를 못 써. 글씨가 막 날라가는 엄마거든. 근데 그 엄마가 편지를 써 보냈는데 진짜 글씨는 못 썼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똑똑 떨어지더라. 진짜 가슴이 뭉클하는거야.(땡땡 선생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진짜를 연발)

올리브 | 우리는 그동안 자모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물했는데 어느 해인가 선생님들의 특성에 맞게 다 다른 선물을 해줬는데 너무 기뻐. 나는 하얀 책모자, 리본도 달려 있는 모자를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

아빠 | 근데 본인 스스로 흰 모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올리브 | 왜 그래, 나 모자 좋아한단 말야. 얼마나 예뻐했는데...



통강아지 | 진짜 어울렸을까? 공주 모자가...

평권 | 나는 선물보다 편지 받는 게 참 좋아.

아빠 | 맞아, 선물을 받을 때도 카드 한장 쓴거나, 안쓴거냐에 따라 기분이 또 다르지.

울리브 | 우리 집에 어떤 엄마는 보육료 낼 때마다 짧은 편지를 보내. 별 내용이 아니더라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아빠 |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동아리 담당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별명이 얼굴이 까매서 까매야. 그 선생님을 못 찾아 가는게 매년 스승의 날에 걸려. 내 동생도 그 동아리였거든. 근데 내동생은 가끔 가는 거 같은데... 나도 가고 싶지만 그 시즌이 어린이집에서 너무 바빠. 정작 내 선생님을 못 생기는 거야. 옛날에 같이 M.T도 가고 졸업 후에 미팅도 시켜주고, 술도 사주고 동등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들 중에 여학생은 졸업하면 땡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대. 남고는 졸업해도 꼭 찾아 온다는 거야. 남고 선생님들은 여자애들은 정 쥘서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대. 나이들어 찾아와 같이 술이나 식사 한끼 하기도 어색하다고 근데 당신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대. 당신은 결혼식 주례도 서고, 같이 술도 마시면 좋겠다면서 여자 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자주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도 못가고 이러고 있어. 올해는 꼭 가야 할 텐데...

울리브 | 난 중고등 시절에 찾아가고 싶은 선생님이 없어. 아! 딱 한 분 계신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야. 근데 막 애정을 준 선생님이 아니면 찾아가나?

아빠 |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커서 만났으니까 선생님을 기억한다지만, 자기도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생각났지. 그보다 더 어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나중에 기억해 줄까? 졸업 후에 길거리에서 애를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면 너무 기쁘다.

울리브 | 우리는 공부방이 옆에 있어서 졸업 후에도 아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우리집에서 처음 졸업한 애가 지금은 고1인데 우리집에서 자원활동을 해. 방학되면 틈만 나면 와. 그리고 얼마전에 상화언니 애를 만났는데 걔가 얘기 때 우리 어린이집을 다녔거든. 지금은 6살인데 나를 보더니 몰라봐. 그래서 내가 설타어린이집 기억하냐고 하니깐 '선생님!' 하며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야. 그 때 옆에 있던 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애들 이름 다 기억하냐?' 묻는데 생각해 보니깐 다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일한지 꽤 됐는데도.

아빠 | 난 고등학교 때 학과 선생님이 몇번 몇번 번호 부르면 너무 싫었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난 사람 이름 참 못 외우거든. 대학 4년동안 다니면서 과 친구들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야. 근데 아이들은 기억 난다. 아이를 볼 때의 교사의 집중력은 엄청나게. 그리고 하루종일 아이를 부르니까 그냥 내 몸에 이름이 배어있는 것 같아.

평권 | 근데 왜 호칭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어. 얘기 좀 해봐.

오빠 | 그냥, 다들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우리 언니는 애들이 4명이야. 애들이 유치원에서 학교까지 다니거든. 나는 우리 언니한테 선생님한테 뭐 하려면 꼭 편지 쓰라고 얘기해. 짧은 카드나 편지가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선생님을 기분 좋게, 살맛나게 한다고 내가 받은 것들 중에도 고맙다는 편지가 너무 좋아. 그리고 비싼 것 받으면 정말 불편해. 아주 가끔 현금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주주로 처리해. 우리 어린이집은 주주를 모

아서 만들었잖아. 한번은 한 엄마가 5만원을 줬어. 주주는 10만원부터 시작이라 아이들 그림책을 샀어. 근데 그 리고 며칠 지나서 그 애가 안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해서 공동기금으로 처리하니까 불편했나봐. 자기는 그냥 그 애 답임한테 준 돈이었는데 그걸 공식화하고 공금으로 쓰니까 무안해서 그만 됐나봐. 그 리고 왜 평소 속썩이던 엄마를 있잖아. 자주 늦게 아이 데려가고 부모회 참석도 잘 안하고, 뭐 그런 엄마라도 가끔 고맙다, 수고한다는 편지하나 받으면 그냥 마음이 짝~ 녹아.

평권 | 때 다차면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엄마는 진짜 기분이 안 좋아.

아빠 | 나는 스승의 날 선물하지 말고 아이가 1년이 지나 반이 올라가거나 졸업할 때 선물이나 편지 받으면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아이가 다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어린이집 그만 둔다니까 옷을 하나 선물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볼 때는 내 애만 잘 봐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제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고 그러는 거야.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데...

평권 | 나도 그런 적 있어. 어떤 부모가 자기네 이사가면서 우리한테 그동안 너무 고맙다고 밥한끼 하자고 하는데 참, 내가 헛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오빠 | 난 눈물 흘린 적이 있어. 하람이라는 애가 있는데 애가 참 순수하고 맑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느려. 모든게 너무 느려서 알람장도 댄 꼴찌로 써오고 그러는 애야. 그러니 엄마도 조금은 걱정스러웠을 거야. 하루는 그 엄마가 학교 급식 당번이어서 학교를 갔는데 같이 온 다른 엄마가 하람이 칭찬을 하더라. 자기가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하람이가 자기네 반에 장애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를 잘 챙겨주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부모가 다 울었대.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고, 선생님들이 잘 키워줘서 그런다고, 선생님 덕분에라고 내 앞에서 또 우는데 나도 덩달아 울었어. 그러면서 내가 아이키우는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통강아지 |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옛날 나 산동네에서 놀이방하던 시절에 만난 엄마네 지금도 인연이 닿아가끔 만나거든. 그 아이들은 남한테 처음엔 못 알아보다가 내가 놀이방 얘기하면 배시시 웃어.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너네 항상 감사하고 잊으면 안돼. 너네 어렸을 때 이 선생님이 너네 다 키워줬어.' 이래. 그 엄마는 애들 보낼 때도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나는 마음 한편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몸들 바를 모르겠어. 내가 정말 애들을 제대로 키웠을까? 혹시 갖은 악행(?)을 저지르진 않았을까? 애들이 나한테 무슨 상처라도 갖고 있진 않을까? 하는 무서움이 생기는 거야. 가끔 졸업한 아이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빠 | 그래서 더 우리가 잘 해야하는 거야.

오빠 | 아까 울리브 선생님네처럼 보육료 내면서 꼭지 건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육료 봉투가 있는데도 문 앞에서 애들이 뻔히 보는데도 돈을 세서 내는 엄마들은 너무 미운거야. 그렇게 돈 세서 받으면 마치 아이가 돈으로 바뀌는 듯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져.

아빠 |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몰라. 꼭 필 선물해야 되는 지 알아. 한 번은 내 친구가 선생님한테 필 해줘야 되냐고 물어라구. 그래서 무슨 때되면 박0스, 완0디, 이런 거 보내지 말고 평소 애들하고 간식이라고 굴 한봉지, 봉이



빵 한봉지 사가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양이 너무 적어서 어떡하냐고 하더라. 근데 양이야 글 한쪽씩 나눠 먹어도 괜찮은 거고 나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다 그러잖아? 너무 이상한 사람말고는.

평곤 | 그럼, 출출할 때 봉어빵 사오는 엄마나 아빠 너무 좋잖아. 그 봉어빵 갖고 애들하고 돌려 앉아 나눠먹으면서 또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젠 딴 얘긴데 우리는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해. 보육교사들은 스승의 날 꽃 받지 말고 어버이날 꽃 받아야 한다고.

울리브 | 우리는 받았어. 한 엄마가 어버이날 아침에 우리한테 카네이션을 주는 거야. 아침에 아이 데리고 나오는데 꽃이 보이길래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생각해서 꽃을 샀대. 근데 알고 보니까 어버이날이더라.

통강아지 |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동안 일하면서 스승의 날이라고 받기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한 번쯤은 내가 아이 부모에게 스승의 날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땀날 쓰는 아동 관찰일지나 아동 상담 편지 이런거 말고 그냥 어른과 어른으로 만나서 내가 부모 입장을 이해하면서 편지를 써 보는 거야.

아빠 | 나 한번 해봤어. 귀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지 걱정도 많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깐 믿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보냈어.

통강아지 | 부모들 반응이 어땠어?

아빠 | 반응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신뢰 관계가 높아지고 그 다음부터 아이에 대해 상담을 하면 진지해지더라구.

그리고 또 다시 새학기가 되어서 아이가 원반으로 올라가거나 졸업하는 아이에게 편지를 써.

울리브 | 우리도 아이가 졸업하거나 어린이날에 아이한테 편지를 쓰지만 부모에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빠 | 사실 반응은 금방 오지 않아. 뭐 반응을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엄마들도 일하랴, 아이키우랴 힘들잖아.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글을 보내면 나중에 그런 것도 서로 의논하게 되고 신뢰가 쌓이지. 아이를 보육하는 것을 단지 직업으로 보지말았으면 좋겠어. 세상 많은 인연 중에 그 아이와 만나서 1년 동안 아옹다옹하고 지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비로와. 그리고 편지를 보낼려면 신학기보다는 이때쯤이 더 좋은 것 같아. 신학기에는 아이도 다 이해 못하면서 그런 걸 쓴다는 게 가식적인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꼭 좋은 말만 안써. 그냥 솔직히 쓰는 거지. 근데도 엄마들은 자기 힘든 것을 알아준다는 데 격려를 받는 것 같아.

오랑 | 근데 유아반은 좀 힘들겠다. 애들이 많아서.

아빠 | 나도 우리 어린이집 교사회의 때 제안했는데 유아반 교사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유아반은 카드를 만들어서 짧게 써서 보내더라.

오랑 | 우리도 날적아를 적어 보내긴 하는데 이것과 그건 느낌이 다를거야. 우리 올해 스승의 날에는 마냥 받기 보다는 뭔가를 나눠야겠다. 그지~?

비장애아 중심의 장애 통합교육 프로그램 I

서정은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이 글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석사과정의 김은숙, 김은영, 태순애, 아예수와 함께 필자가 공동 연구한 [비장애아 중심의 장애통합교육 프로그램 (1999, 미간행)] 자료집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 첨가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모두 두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자료이용에 앞서

I.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1. 필요성 2. 목적 3. 프로그램 전개 방향

II. 프로그램 실제

1. 준비하기 1) 예비 주제망 작성 2) 가정통신문 작성 및 발송

3) 프로젝트 관련 자료 및 정보 목록표 작성

(1) 영역별 활동 자료 (2) 전시 및 실물자료 (3) 프로젝트 활동 정보

4) 환경구성

2. 도입단계 1) 프로젝트 전개 (1) 전개과정 (2) 활동 전개일정 2) 활동

3. 전개단계

4. 마무리 단계

5. 환경구성

6. 세부활동 프로그램

7. 부모, 교사를 위한 제언

자료이용에 앞서

전체 보육시설 약 19,000여개 중 장애아 대상의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에 약 60여 곳으로 집계된다. 이중 약 30여 곳은 장애아와 일반아의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두명의 장애아를 보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특히 통계를 누락된 곳이 많아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아 대상의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약한 경증 장애아는 보육시설에서도 담당하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어 보육시설에서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통합보육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현실적으로 미룰 수 없는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1) 장애아동 부모는 일반부모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그들 아동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찾는 데 있어 일반아동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 교육비 외에 장애 아동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 또 다른 어려움은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 이 아동을 교육하는 적절한 서비스 종사자의 부족,
-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의 시설미비,
- 교육기관이 지리적으로 멀거나 이용할 교통수단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신이 아동의 장애를 초래했다는 죄책감, 불안,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과 결혼 관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적절하고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가족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장애아는 치료기관으로, 보육시설의 몫은 아니다!..?

보육시설의 일선 교사들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은 단지 교육에 그쳐서는 안되며, 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하다.

즉 정작 장애 아동은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며, 시각 또는 신체 장애 아동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 아동은 적절한 인지적 자극을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속적인 긍정적 강화는 궁극적으로 이 아동들의 발달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교사들과 원장들로 이루어진 보육시설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 좋은 대안은 아니며 적절하지 않다.

즉 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치료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 언어 병리사, 소아과 의사, 신경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 전문가, 행동 치료사 등의 종합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특수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와 평가를 통해 특수 장애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즉 보육시설은 특수교육기관, 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과 장애아에게는 전문가들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장애아는 전적으로 보육시설의 몫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3) 지식의 부족,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경증의 장애아 보육은 보육교사가 갖는 치료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아동과 무엇이 다른 면에 대한 고려는 경증의 정도를 떠나서 여전히 교사에게는 부담스럽다.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교사들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순간 찾아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 장애아 자체에 대한 사실·법적, 의료적 지식을 포함하여
- 2) 특수교육-장애, 장애아 교육과 치료
- 3) 통합교육-전문기관에서부터 일반 보육시설의 통합교육까지

장애보육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두려움은 여러 연구와 기초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루하루 부족한 시간속에 별도로 자료를 찾아보고 교사들끼리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관련 강습이나 강좌를 찾아 다니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장애란 무엇이며, 그 구분은 어떠한가, 장애진단과 처치, 교육방법 등) 과 현상, 정책,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과 조건속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접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교육활동을 할 지 과제를 찾아간다.

(4) 통합보육은 장애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입견을 고민하고 반성함으로 시작된다.

앞서 이론과 자료를 검토한 이후의 단계에서 나온 것들로, 장애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입견을 발견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각, 철학적 사고와 가치관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장애인, 장애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려를 하기에 앞서 '인간관의 질문'을 받게 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여러 모습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은 장애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며 장애에 대한 개념의 관점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 (김성희 1996). 통합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차원, 장애인 교육)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요사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편견적 사고'에 대한 작업이 포함된다.

통합의 효과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한가?,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합교육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이 속에서 교사 스스로 통합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찾게 되며, 이후 통합교육의 수준과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5) 이 글은 1) 장애, 장애자체에 대한 사실 2) 특수교육 3) 3) 통합교육에 대하여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어 쉽게 구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일반아동들이 장애, 장애아를 어떻게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일반아동들에게 장애에 대해 교육했을 때, 오히려 더욱 장애아와 차이를 느끼게 하고 차별케할 수도 있기에 그대로 두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 아이는 순수하고 선한 존재라는 의식;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은 서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중심의 사고 경향성; 특수한 상황을 일반아동들이 얼마나 접할 것이며, 그보다 장애 아동 자체의 치료와 특수교육을 고민하자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시설에서의 경험(국립어린이집 이장미 원장과의 대담에서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어떻게 여기는지 질문하자, "일반아동은 장애아동을 인식하지 않고,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살다와서 행동이 약간 다르거나 서투를 뿐이라는 정도로 여긴다. (1999.10.8 대담)에서 이러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장애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의 과정이나, 인식과 차별감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보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아동들이 장애와 장애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습득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프로그램과 교사, 부모 등 성인의 지도없이 그러한 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자료 이용은..

시설에 처음 입소한 일반아동의 초기적응기간이 일반적으로 약 15일에서 1개월이며 이 때의 경험이 이후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초기 적응기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아동만 있는 경우, 또는 현재 장애아가 함께 있는 시설 모두에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프로젝트접근법에 의한 프로그램이기에 이와 관련한 사전 이해가 있다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프로젝트접근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살펴본 후 본 프로그램을 검토, 현장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1.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1. 필요성

장애아를 주류문화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교육에서 나타날 때 주류화(Mainstreaming)라고 부른다. 주류화는 주류하는 강물이 큰 줄기를 이루고 흐르는 것을 교육에 비유할 때 그 물줄기에 장애아동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접촉이나 학습활동 등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Kaumann, Gottlieb, & Kukie, 1975; 재인용). 특수교육은 분리교육에서 주류화(통합교육),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을 거쳐 완전통합으로 변화해 왔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현재 완전통합 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통합교육(주류화)를 실천하려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통합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분리교육에서 얻는 성과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의 초점은 장애 유아교육을 통합환경에서 실시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획하는가에 있다. 유수옥(1998), 성공적인 장애유아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탐색연구, 유아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303-318)

통합교육은 교육정책 및 행정조직의 개혁을 포함하여 편견, 장애아 방치와 무관심, 교육권 및 인권의 박탈,

물리적 통합으로 단순 오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비협조 및 의사소통결여,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의 교류 결여 등 등.. 이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라이저(H.Riser)를 위시한 프랑크푸르트 통합연구팀은 통합을 위한 외적 환경의 조성(제도나 조직체계 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통합을 조성하는 주체인 개인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과 능력을 가지는 것 (Riser, H./Klein, G./Kreie, G./Kron, M. 1986): Integration als Prozess, in: Sonder- paedagogik, Zeitschrift 37 Jg., 16. s. 115-160; 재인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 통합교육의 성패는 일반아의 장애아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에 달려 있다.

장애 차별주의는 균형잡힌 발달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경험으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당당한 자아개념의 수립을 방해함으로써 장애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 장애 차별주의로 인해 장애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 충분하고 편안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장애가 아니라는' 것에 기초한 그릇된 우월감을 가르치게 된다. (이은화 역(1999) 빈민권 교육과정, 창지사, p21-22) 이 경우, 통합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들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소외되고 거부된다면 성공적인 통합에서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통합이 장애아동에게 제한적인 환경이 되고 장애아동에게 좌절의 경험을 강화시키게 된다. (정신화 (1993) 정신 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그러므로 통합교육의 성패는 일반아동의 장애아에 대한 지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을 받은 유아는 일반유치원의 유아보다 장애 인식을 더 많이 하였으며, 또래 장애인 수용도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유아는 눈에 띄는 단서가 있는 장애에 대해 많이 인식하였으나 지각적인 단서가 없는 경우 부정확한 인식 즉, 편견에 기초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장애에 대한 편견된 교육과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영(1998) 통합교육을 위한 유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될 때 부딪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정상아들을 장애아와 함께 교육시킬 때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통합교육이 정상아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으며 오히려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 인하여 발달면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Odom & McEvoy, 1988; Bailey & Wolery, 1992 재인용). 그리고 자폐아동에 관한 Nordquist, Twardz와 McEvoy(1986)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정상아들이 자폐아의 상동행동을 모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폐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된 교수방법으로 인해서 정상아들의 사회성 발달이 오히려 촉진되었다고 한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통합경험에 의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는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시되었을 때 장애 유아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유아에게도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유아의 유아기 통합교육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은영(1998) 전거서)

첫째, 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들과 어울려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한다. 특정 인간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인상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유아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회경험부터 장애 유아와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태도를 익힌다면 성인이 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장애유아에 대한 성인들로부터 얻은 부정적인 이해와 인식을 직접 체험을 통해 개선시키며, 인간의 개인차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셋째, 장애 유아와 실제경험을 통해 장애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정서적, 사회적 조망능력이 발달한다.

넷째, 사회적 친숙효과로 일반 유아와 장애유아의 상호간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화된다.

다섯째, 장애유아들에 대해 상호협력자, 모델,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을 돕는 마음, 양보심, 배려하는 마음, 함께 느껴보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다양하게 익히게 된다.

여섯째, 자신의 지식을 장애유아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보다 확실하게 다듬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외에도 일반아동에게 미치는 통합교육의 효과를 첫째, 장애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둘째 통합환경에서 일반아동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교육과정이나 기타의 교수방법은 교사들의 더욱 신중한 계획과 배려로 인해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광천학교(1999) 정상장애 유아와 일반유아의 통합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안)

2) 일반아동의 준비도 통합교육의 한 과정이다.

통합이란 규범화된 사회체제 속으로 장애아가 적응하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아와 비장애아 모두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상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은 즉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상호간의 만남을 통한 '행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김성애, 1997 재인용), 그러므로 통합을 위하여 장애유아뿐만 아니라 비장애유아도 준비가 필요하다.

장애유아와의 접촉경험만으로도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Synder, Apolloni, & Cook, 1977) 단순히 비장애아가 장애와의 접촉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직접적이고 구조화된 접촉을 제공했을 때 효과적이다. 통합이전에 다양한 활동과 매체를 통하여 장애아에 대한 정보나 간접 접촉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유아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수옥(1998) 전거서)는 지적이다. (구조화된 접촉 활동, 비디오 테이프, 손인형을 이용한 정보제공, 장애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 극적 놀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장애아의 타고난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그 능력에 대해 일반 유아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바꿈으로써 또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유아에 대한 일반 유아의 태도를 보

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변화시켜 장애 유아들을 수용하고, 모델 제공자, 강화제공자 및 대행 교사로서 일반 유아가 장애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조치는 일은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최은영(1998), 전거서, p18)

3) 통합교육은 학령기가 시작되기 전인 유아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야콥무스(J. Muth)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시기의 발달적 상황에서 살펴보면,

1-3세 아동은 ... 신체적 장애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비록 1-2년 후에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조짐은 있지만) ... 3세경에 (때로는 더 일찍이) 사회적 기준과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흔적이 나타나며, 성, 인종, 또는 장애에 대해 전편견(pre-prejudice)을 표출한다. ... 또한 4-5세 경에 ... 장애를 지닌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내고 또 거부하기도 한다. 이렇듯 4세에 이미 고정적 성역할, 인종적 편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화된 정도로 보아 편견 교육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이은화 역 (1999) 편견 교육과정, 창지사, p19-20) 이경우, 만일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가진 아동과 비 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배운다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의 통합은 당연히 하게 여겨질 것이다. 어린 시절의 자연스런 통합의 분위기에서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것은 아동들에게 '편견 형성'의 위험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의 개인차와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비장애아에게 장애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세가 되면서 어린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다른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청기나 클리치를 사용하며 다니는 등 두드러진 신체적 장애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성인들의 돕기 행동에 대한 모방이 이루어진다. (이경희 역 (1999) 전거서, 58p, 59p)

4)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 초기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육경험이 없는 유아는 비형식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유치원 환경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경험이 있는 유아는 이전의 유아특수교육기관과 물리적 환경, 유아, 성인 비율, 일과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유수옥(1998) 전거서, p306)

그렇기에 유아교육기관에 입소한 초기에 장애유아에게 적절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입소 초기의 복잡함과 낯선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통합환경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경험과 환경에 대처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통합교육 실천에 있어 일반교사들의 인식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 (손상희(1998)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태도보

서, 특수교육연구 제 5집,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연수나 통합교육에 관한 실습이나 현장실천을 위주로 한 연수에 의해 개선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일반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특수교육 연수경력은 인지적, 행동적 태도에 영향을 주며, 장애아동에 대한 접촉경험은 감정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 및 확충을 위한 일반교사들의 행동적 태도와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입각한 일반교사들의 인지적 태도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특수교육 연수나 통합교육 연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2. 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다수의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 실행이 가능하며 통합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즉 비장애아 중심의 초기 적용기간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장애 통합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을 통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장애에 대해 정확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통합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
3. 비장애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진정한 차이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것을 촉진시켜 성숙한 인격체로 길러내는데 기여한다.
4. 비장애아동이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편안하며 공평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5. 비장애 아동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증상, 그리고 신체적 장벽을 어떻게 저항하고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 가르친다.
6.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개인이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 모습 속에서도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인격체를 기르는데 기여한다.
7.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의 고립화와 특수화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8. 아동에게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게 상호작용하도록 하면서 모든 사람은 유사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 역시 인간이고, 편견을 가진 생각을 인정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3. 프로그램 전개 방향

모든 통합수업에서는 열린 수업,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프로젝트 지향적인 수업, 그리고 장애학생을 위한 치료교육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접근법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대강의 프로그램은,

1. 장애에 대해 자유로이 질문하고 인식하기
2.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능성과 능력에 대해 인식하기
3. 특수한 장애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나 장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질문하기
4. 특별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알기
5. 장애체험활동으로 장애인과 파트너십 형성하기
6. 비장애아와 장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계획하기
7. 장애아가 프로그램에서 제한되거나 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기
8. 그림책, 인형, 비디오 테일, 사진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애에 대해 소개.
예) 왕눈이와 코주부와 당나귀 귀 (웅진) 눈먼 곰과 다람쥐 (웅진) 반쪽이(두손)
제주꾼 오형제(두손) 행운의 손가락 (한국어린이 육영회), 육이의 약속(한국어린이 육영회)
심청전 (두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전래동화) 피터팬 (외국) 백설공주 (외국) 노틀담의 꼽추 (외국)
9. 병원이나 치료기관 등 장애아가 이용하는 공간, 목발 등의 장비 제작 및 이용기관 등을 방문하기.
10. 특정한 장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수화, 점자 등)
11.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12.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13. 주변의 장애인 이용시설 견학하고 조사하기



소리지르기-소리를 때 이런 느낌이야!

이상옥 · 서울 서부지회

아래의 글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미술소모임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앞서.....

이번 활동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강산은 1997.3.10일 생으로 공구놀이 를 즐겨하고, 땅치(장난감) 를 들고 다니며 여기 저기 두드리며 고치기를 좋아 하고 아이들을 자주 때리



눈만 쳐다본다. 먼저 교사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소정이가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교사가 뭐하는 건지 의아한 눈으로 구경을 하고 있다. 아호! 엄마! 아빠! 등의 구호로 아이들을 소리지르게 유도하니 그제서야 성민이, 민우, 건우 등이 따라서 한

는 말쑥꾸러기 남자 아이구요. 문소정은 1997.5.3일생으로 나날이 애교가 넘쳐나는 여자아이입니다. 조성민은 1997.6.13일생으로 기가막힌 언어 구사력으로 말로써 한 몫 단단히 하는 공부 잘 하는 모범학생 같은 스타일의 여자 아이예요. 정현호는 1997.7.16일생으로 침묵 그 자체인 생각이 많은 점잖은 남자 아이구요. 홍민우는 1997.11.5일 생으로 볼살이 통통한 귀여운 남자 아이입니다. 그 외에 김설원을 비롯하여 모두 12명의 아이들이 '소리지르기'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신학기라서 활동에 무리가 따랐음을 양해바라구요. 그나마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활동과정은, 1.소리지르기(소리를 지르는 모습 사진찍기) 2.사진을 확대 복사하여 색칠 하기 3.색칠한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기로 전개 하였습니다.

1. 소리지르기 (3월21일)

다 함께 소리를 질러 보자고 하니 아이들은 교사의

다. 소리지르는 것을 안하고 교사를 구경만 해서 애를 먹었는데, 정완이의 경우는 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강산이도 의외로 수줍어하며 뻔뻔(뻔 일~) 설원이는 멍한 얼굴로 쳐다보며 나머지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도록 교사얼굴만 구경했다. 겨우 한명씩 소리를 지르게 해서 소정, 민우, 성민이, 현호, 강산이의 소리지르는 얼굴표정을 찍을 수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헛바닥을 내밀게 해서 (메-롱) 사진찍기에만 성공했다. 상호작용이 되는 아이들은 강산이, 소정, 성민이 등인데 '소리지르기' 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도 소리지르는게 재미있었는지,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하면서 걸걸한 소리를 지르면서 노는게 눈에 띈다.

2. 사진을 확대 복사하여 색칠 하기 (3월 22일)

소리지르는 사진을 확대복사하여 아이들에게 보여 주니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사한 모습을 소리를 지르며 이름을 대기에 바쁘다. 소정이는 자기의

모습을 보더니 "소정이다! 아 하하하!"한다. 사진과 복사물을 같이 보여 주니 첫날 씩스러워하던 정완이도 그 기분을 벗어버린 듯 재미있어하고 모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서인지 서로 즐거워하며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한다. 헛바닥 내밀은 사진을 보자 아이들은 '메롱' 거리면서 허들을 내밀어 본다. 소리지르는 표정이 제일 근사한 소정이를 모델로 세워 사진처럼 소리를 지르게 해 보았더니 역시 잘 한다. 복사물을 나누어 주고 소리지른 것을 색연필로 색칠 하게 했다. 강산이는 눈을 빨간색 색연필로 위아래로 칠하고 입에도 빨간색을 칠한다. 밤색을 섞어서 조금 끄적거리더니 "선생님!다 했어요!"하며 정리를 한다. 성민이도 눈에는 파랑을 입에는 검정을 칠하고 소정이는 초록색으로 얼굴 전체에 색을 칠하고, 민우는 노랑으로 연하게 얼굴에 끄적거리를 한다. 현호는 초록과 노랑을 섞어서 역시 얼굴 전체에 색칠을 하고 소리지르기를 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은 복사한 얼굴에 끄적거리기를 한다. 흥미있어 하는 태도들이다. 다음은 색칠한 것을 벽에 제시한 후 소리 지르기를 한 아이들과 개별적으로 잠깐 나누는 이야기이다.

교사: 강산이 뭐 하고 있는 거니?

강산:야!

교사:왜 눈에도 빨간색을 칠했니?

강산:그냥요!

교사:그냥?소리가 어디서 나와?

강산:코에서요!

교사:우리 소리지르면서 아~ 해보자. (목에 손을 대고 소리를 내니 목이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강산이는 소리가 목에서 난다고 말을 했다.)

교사:성민이 뭐하고 있는 거야?

성민:조성민!(교사는 성민이가 색칠한 것을 가리키며 물었는데 자기말을 받아 쓰는 교사를 바라보며 또 박도박 이름을 낸다. 그러더니 교사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나?야!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더니 씩 없이

이야기를 꾸민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테레비방송에서. 방송을 크게 불렀어요!

교사:야!소리가 어디서 나왔어?

성민:코에서 나왔어!

교사:성민이는 왜 눈에 파란색을 칠했니?

성민:건드려서!김재준!

교사:입에도 검정색을 칠했니?

성민:예쁘라구!

교사:소정이는 뭐하고 있는거야?

소정:문소정?문소정!아~호!

교사:아~호!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소정:느낌 들었어요. 느낌(무척 수줍으면서도 자신 없는 태도로 말을 한다.)

교사:소정이 입 안에 뭐가 있지?

소정:아~호!아~호!가 있어!

아이들은 벽에 전시해 놓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재미 있어했다



3. 색칠한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기 (3월23일)

벽에 전시한 결과물들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를 해 보려는데, 갑자기 "잉! 잉! 잉!"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린다. 방금전에 무슨 소리가 났네?하고 묻자 아이들이 웃는다. 누가 울었느냐고 하니 소정이가 강산이라고 한다. 다른 교사가 우는 소리를 연이어 흥내 내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민이가 얼레리 플레리 울었다고하고 놀림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 연이어 다른 아이들 까지도 합세하여 얼레리 ~ ~ 하며 놀리기 시작한다. 활동내용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전환 되는데 아이들이 끌고 가는 대로 화제를 전환해서 해 보았다. 그러더니 박수를 치는 아이가 있어 누가 무어라 할 것도 없이 다 함께 박수를 친다. 짹! 짹! 성민이가 박수소리라고 말을 하고 아이들과 한참 박수만 쳤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잉잉잉! 거리는 소리에 아이들은 얼레리 팔레리 ~ ~ 하며 놀리는 소리가 합창! 그 소리에 소정이가 까르르 웃어대서 웃음소리를 내 보자고 했다. 한참을 웃는 소리를 내는데 특히 연용원이라는 27개월된 남자 아이는 박장대소에 제스처까지 취지 않고 웃는 흉내를 내는데, 한마디로 정말 웃음바다를 연상시킨다. 흉내내던 웃음이 정말로 웃겨서 웃는 웃음이 되어 기분까지 개운해졌다. 소리에 대해 준비도 없이 시작한 것 같아 아이들에게 웃음을 중단하고 목에 손을 대 보면서 소리를 내보게 했다. 성민이는 소리의 느낌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목이 아프다고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 와중에도 용원이는 여전히 박장대소에 방바닥을 양손으로 두드리고 머리까지 치면서 웃고 있다.(기가 막혀요)

본격적으로 '색칠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했는데 소정이를 나오라고 해서 사진처럼 소리를 질러보라고 하자 소정이가 처음보다 큰 소리로 야! ~ 라고 소리를 지른다. 아이들은 무척 즐거운 상태이다. 아직까지도 용원이는 너무 즐거워서 정신을 못 차린다. 첫날 소리지르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성민이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쉬지 않고 야! ~ ~ ~ 를 연타로 하고 있다. 나와서 소리지르는 아이보다도 앉아 있는 아이들이 더 시끄럽고 자기를 나름대로 더 즐거워 하는데 이상한 것은 질서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혀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저희들끼리 즐거워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게 신기했다. 다음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의 아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 현호야 뭐 하고 있는거니?
현호: 사진만 바라보며 말이 없다 (계속 침묵) _ 잠시 후 퇴장한 현호

교사: 소정아 소리를 지르니까 어때?
소정: 느낌이예요 (소정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떠드는 성민이 왈, "소리가 나와요"라고 대신 대답해 준다.)

교사: 성민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니?

성민: 큰 느낌! 큰 느낌이 들었어요!

교사: 왜 파란색을 칠했니?

성민: 예쁘라구!

교사: 어떤 느낌이에요?

성민: 아픈 느낌이에요!

이상과 같이 3일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그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기를 해보았는데 이런 작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 가지 소리를 경험해보고 소리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이 표현하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작업에는 미흡함이 많았다. 소리지르고 표현하기(시각)로 시작했지만 손을 목에대고 소리의 울림을 경험한 것은 잘 된 일이고, 아이들이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어한 점, 웃음을 흉내내다보니 정말로 즐거워진 점 며칠사이에 아이들이 더 빨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강산이의 색칠하기와 성민이의 색칠하기에서는 느낌이 전달됨을 알게 되었다.



우리 손으로 꾸며요.

주영 · 서울 서부, 어깨동무어린이집

준비물: 한지, 풀, 먹지, 연필, 투명테이프, 색연필, 종이 | 참여인원: 18명

대상: 강물반 6세 (어깨동무 어린이집) | 교사: 주영 | 일시: 2000년 3월 8일, 22-24일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물반 강물에 머문조작업이 너무 힘들게 보아 아이들과 직접 같이 꾸며 보았다.

3월 8일 - 한지 만지고 느껴보기

아이들에게 한지와 색지지를 같이 보여주면서 직접 느끼고 만지게 해 주었다. 창문에 비춰서 빛이 잘 통과 되는지 색의 느낌은 어떤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 (한지를 보여 주며) 이게 뭔지 아니?

동익: 종이네.

윤: 예뻐요.

교사: 이게 한지라는 건데 색지랑 조금은 틀려. 자 봐. (창문에 걸어 놓고서) 색이 어떻게 보이니?

예원: (빛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햇님이 보인다.

희연: (색지를 보면서) 저건 이상하게 짙습네.

윤: 한지에 먼지가 있어요.

성준: 지저분해. 누가 종이에 낙서 했어.

교사: 두 개를 같이 보니까 느낌이 어떻게?

아영: (한지를 보면서) 이게 더 예뻐요. 정말 하늘 같아요.

한지를 나누어 준 후 아이들에게 만져 보도록 했다.

아영: 까칠해요.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애들아, 내 얼굴 보여?

은경이도 같이 흉내 내 본다.

종이를 주고선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손으로 찢거나 가위로 오려서 붙여 보게 했다.

종윤: (풀 때문에) 손이 이상해요. 종이가 안 떨어져.

성준: 종이가 잘 오려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활동 중간에 밖에 눈이 내렸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모두들 종이를 뭉치면서 하늘의 구름과 눈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정택이가 창문에 매달려 구경하자 모두들 밖으로 나가고 싶은 지 한지를 모두 뒤로 하고 창문에 매달려 소리쳐서 활동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 눈구경을 했다. 대부분 한지가 다루기 힘든지 오려다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한지에 풀을 칠했을 때 색지나 색종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안되자 짜증을 내는 아이들도 많았다.

3월 22일 창문 꾸미기

아이들을 4조(빨강, 초록, 노랑, 파랑)로 나누어 각자 봄-봄 생각을 띄어 줄 수 있도록 시를 들려주고 색칠 만지기, 자료 통해서 환기 시켜주기 하면 생각나는 그림을 상의해 그려오도록 하였다. 꽃, 나비, 벌레 등 거의 한정된 그림을 그려 왔으며 자신들의 그림을 그리기에 바빠 내용이 전혀 없는 그림이 나타났다. 아이들과 상의해서 어느 팀이 잘 그렸는지 비교해서 정하였다. 서로 자신의 팀이 잘 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빨강팀이 제일 잘 그렸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사: 저번에 본 한지야. 우리 여기에 빨강팀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려서 창문을 꾸며보자.

아이들: 우와! 좋아요.

각자 무엇을 그릴 지 아이들을 나누어서 한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잘라서 주었다.

나무며 꽃, 집 등을 그려서 주었지만 오리는 것이 잘 안되는 지 그림이 많이 망가져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자신들이 만든 그림이 창문에 붙어있는 걸 보자 어떤 친구는 그냥 종이를 찢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문: 제가 만든 집이에요. 저쪽에 붙일래요.

강운: 이젠 뱀이에요.

교사: 눈도 그려줄래?

강운: 어떻게요, 저 못해요. (교사가 할 수 있다고 하자) 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려주세요.

성준: 이젠 꼬리달린 뱀님이에요.

예원: 이것도 뱀님인데.....

교사: 상준이 뱀님을 빌려 붙였는데.

예원: 또 붙여주세요.

동호: 이젠 아기 뱀님이에요. (결국 뱀님이 3개가 되어 버렸다.)

교사가 뱀님을 만들려고 종이를 뭉치자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본다.

세동: 그게 뭐예요?

교사: 뱀님이 만드는 거야.

경택: 우리도 만들자.

자신들이 쓴 찢투리 종이를 모두 줌더니 뭉치기 시작한다.

아이들: 이것도 뱀님이야. 여기에 붙이자.

하영: (뱀님을 붙이다 말고) 이거 꼭 꽃같아요.

희현: 맞아, 예쁜 꽃이야. 나도 뭉칠꺼야.

아이들이 뱀님에 등성등성 마구 붙이기 시작해 결국 창문 하나를 꾸렸다. 교사가 보기에는 정신없이 보였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며 소리친다.

하영: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뻐서요. 애들이 기분 좋지요?

모두들 좋다며 수긍을 한다. 명상시간에 창문을 보면서 뭐가 제일 예쁘냐고 했더니 뱀님과 꽃이 예쁘다며 꽃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자고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3월 23일 - 창문 꾸미기 2

아이들 각자에게 종이를 주고 이번에도 자신이 '봄' 하면 생각나는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였다. 대부분 앞날과 같은 그림이 많았다.



3월 24일

전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확대복사하여 먹지에 베껴서 그리도록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확대 복사한 그림을 어떻게 배열하여 창문에 꾸밀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그림을 완성하였다. 먹지를 처음 사용하는 아이들이라 사용방법을 설명하였다.

교사: (먹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니?

성준: 비닐이다.

문: 봉지야.

동익: 색종이 아니예요?

교사: 이젠 먹지라고 하는 거야. 왜 먹지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문: 먹지말라고 먹지 아니예요?

아이들: ??

교사: 자 선생님이 마술을 보여줄게. 먹지를 그림과 한지 사이에 깔아두고 선따라서 그리면 짜잔~

아이들: 우와! 신기하다. 선생님 나도 해볼래요. (모두들 눈을 빛내며 아우성이다.)

아이들 인원수가 많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5명씩 돌아가며 먹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 그리게 하였다. 다들 신기한 지 자신이 베껴낸 그림을 보고 무척 좋아했다.

오후에 아이들에게 오전에 배열해 놓은 그림을 밑에 놓고 교사가 창문에 잘 붙이는지 아이들에게 감시하도록 하였다. 조금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옆인데, 거기 아니예요." 하며 항의를 거세게 하기도 하였다. 이 틈을 타서 몇몇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놀이 영역으로 가 눈치껏 놀기도 했다.

교사: 됐어?

아이들: 네. (열 창문을 보며) 저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식: 그런데 곰돌이가 잘못 붙었어요. (입을 꼭 내민다.)

예원: 선생님, 저것처럼 종이 뭉쳐서 붙여요.

아이들: 그래요.

또 앉아 종이를 뭉친다.

종운: 위에도 붙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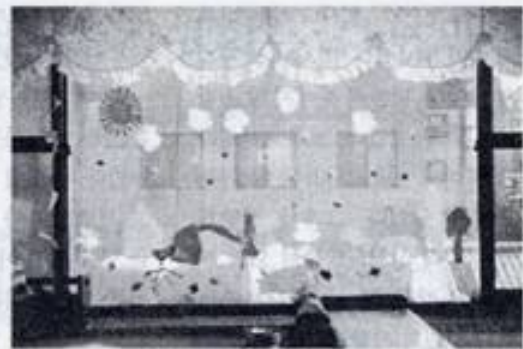
동일: 때투기가 뛰는 것 같아요.

주희: 나비같다.

민선: 아니야, 잠자리 같아.

아이들이 교사에게 여기 붙여라 저기 붙여라 요구가 많아 공중에 날아다니야 했다.

이번 작품에는 아이들이 집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며 교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다.



처음엔 랜지 창문에 붙어있는 한지 조각들이 어수선하게 보였지만 갈수록 친근감이 느껴지고 따뜻해 보여 좋았다. 아이들도 귀가할 때 자신의 부모들에게 자랑하며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이 무척 귀여워 보였다. 아이들이 한지를 아직 다루기 힘들어해 활동하는데 힘이 들긴 했지만 같이 교실을 꾸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보육교사회 신입회원의 날 풍경

황순옥 · 서울 북부, 등근나무어린이집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 "신입회원의 날"에 참가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여성평화의 집에 대한 약도가 없어서 참 찾아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무조건 동대문운동장 4번 출구로 나왔다. 나와보니 앞에 3명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가 보았다. 역시 나의 생각은 맞았다. 덕분에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다. 보육교사회라고 하여서 보육교사라면 다 가는 곳인 줄 알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신입회원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적은 인원의 사람들이 왔다. 하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도 잘 못보고 이름도 모르고 스쳐

가는 것보다는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아주 정겨운 자리였다. 들어갈 적부터 "오늘은 신입회원들이 주가 되는 날이야" 하면서 왕신임인 나에게 새롭고 설렘을 안겨주었다.

신입회원들의 각자 자기 소개에 이어 회장님의 보육교사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그 후 이루어진 이야기 나누기 시간...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해 소그룹(3명)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서로들 인사 나누고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보육교사에 대한 생각을 4가지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익명으

로 답을 하여서 좀 더 솔직한 대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답한 내용(자기 자신의 장점에 대해 무척 겸손한 답변을 보였고 자기계발을 많이 하고자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다)을 보여가면서 때론 "아하, 그렇구나", 때론 "아닌데~"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해 볼 수 있었다.

너무나도 즐거운 수호천사 정하기 시간... 기존 회원들과 신입회원의 친목도모도 있고 신입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보이는 모습이었다. 기존회원 중 그 날의 행사를 준비한 중간간부들이 수호천사가 되어 신입회원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이벤트였다. 수호천사를 정하는 절차는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제비를 뽑고선 "너무 가까워서 안돼", "너무 멀어" 하면서 서로 서로 바꾸는 모습이 꼭 아이들의 모습같이 귀엽게(?) 보였다. 신입들에게 항상 자신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장치이니까.. 후후

그후 기념촬영시간.. 타이머를 맞추고 카메라 앞에서 찰떡대다가 갑자기 터진 플래쉬에 후후~ 자연스러운 사진이 기대된다.



교육부장님의 미술교육과 연령별 소모임 소개가 있었다. 다들 자기계발에 도움되는 기회를 살리려고 관심이 많았다. 나도 미술소모임 하나를 들겠다고 신청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한편 기대도 된다.

몇 명의 회원들이 돌아가긴 했지만, 밥을 먹으면서 더욱더 친목

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가까운 한식집으로 향했다. 시간이 저녁시간이라 다들 열심히 먹고 떠들면서 오늘 이 행사가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워냈다.

저녁식사 후 준비함을 제외하곤 다들 집으로 향했다.

꽃내기 신입회원인 나에게 어렵

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수호천사가 있고 포근한 엄마풍 같은 보육교사회의 따스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계속 애써나가는 보육교사회가 되길 바라며 꽃내기 신입의 글을 마친다.

현장소식 2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설명회를 다녀와서

김진희 · 부산 등래지회 등근나무어린이집

석달마다 한번씩 가지는 '교사 재교육'은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몇 년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회 대표님께서 직접 내려 오셔서 하시는 교육이라 우리 회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다. 미리 자료를 보고 준비하는 성의는 가지지 못했지만 다들 출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려는 열의(?)를 보였다.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어진 교육, 보육교사의 현실을 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다. 전체 교육이 있

을 때마다 늘 늦어지는 시작시간, 늦은 퇴근시간에 먼 거리를 달려 온다는 게 그리 마음 같지는 않은 것이다.

결국한 우리의 새 민요를 배우며 대표님의 소개로부터 교육은 힘있게 시작되었다. 영유아 보육법개정(안)은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보육대상 확대와 차등 보육료 제도의 확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 시설 장과 보육교사 관련제도의 개선, 방과후 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시대적이고 현실적 요구로부터 법개정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요(要) 보호 아동에서 보다 확대된 모든 영유아 및 아동의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비롯하여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 보육발전 위원회 신설, 보육교사 자격증제도와 1-3등급의 체계로 확대, 건강·영양·안전부분의 신설, 차등보육료 제도 확대에 대한 방안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정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물론 개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다 개정된다해도 뿌리깊게 남아있는 보육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 작업을 함께 해 온 모든 단체들에게 뒤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이 교육을 다 마칠 때쯤 가슴한 편이 아려온 왜일까? 개정안을 유아학교의 문제로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나의 성의 부족일까? 아니면 개정안이 우리 보육현실의 최선책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까?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보육현실의 주체인 우리교사들의 처지와 조건이 충분히 토론했어야 입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교육활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육의 질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로 부터, '자격증제도'의 개정안, 이것 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비단 나만의 욕심일까.

보육교사 생활 4년 이제 횡수로 5년을 접어든다. 처음에 가졌던 열

정과는 달리 해가 다르게 몸은 지쳐가고 보육운동에 가졌던 열의들은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루기본 1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박봉, 허울좋은 호봉제, 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근로조건, 높은 이직률,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교사생활을 몇 년을 지내다 못해 떠나는 동료교사들, 이들을 잡아보지도 못하는 우리...

해를 더할수록 힘들어져 가는 교사생활.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가까운 일례로 우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우리의 이해와 단결로서 영유아 보육법을 만들어 냈고 또 이제는 10년이나 묵혔던

법을 바꿔내고 있는 보육현실은 숨겨진 우리들의 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보육환경은 변해왔다.

하지만 시대적 요구로서 외쳐대는 보육의 질적 전환은 보육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법개정의 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시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성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보육교사들의 현실인 것이다. 감히 제안해본다. 이젠 우리의 힘으로, 법개정의 성과를 기초해서, 우리들의 근로조건, 우리의 보육법을 바꿔보자고.

그래서 진짜 보육의 질을 얘기해봅시다.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그리고 보육교사회 모두모두 화이팅.



한국보육교사회라...

김유경 · 대구, 다담어린이집

1박 2일 동안의 일정은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중앙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와 이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생각과 현장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적용이 안된 나는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밖에 없었다.

강의내용은 전체적으로 한국보육교사의 역사와 현 활동,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참여교사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

다들 처음의 내 생각과는 달리 적극적인 모습이였다. 물론 강의시간 이후에 가진 자리(?)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모습들이었지만 말이다.

순수 아이들만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들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나 또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생

각한 것이 '왜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일로 평가되는가?' 라는 것이었다. 직업의 전문성이나 중요도는 무시된 채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으로 설명되어 버린다.

[한국보육교사회]라는 곳의 근본적인 활동목표는 아이들을 위한 활동, 그들을 위한 복지라고 하지만 근원적인 교사들의 처우측면은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되어 보육교사라는 직업의 인식도가 높아졌을 때, 교사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이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한국보육교사회]라는 단체적이고 조직적인 이미지가 날 수 밖에 없는 명칭이나 활동이라든지 역할의식, 전망, 신분보장 등의 용어는 짧은 경력의 나에게 생소한 것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 모두가 자칫하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1년이 채 안된) 나의 솔직한 모습은 햇볕이 드는 따뜻한 봄날,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만족을 느끼는 그런 다소 감성적인 면을 추구하는 교사이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향해 가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광주보육교사회 두 번째 회원강좌를 듣고 나서

김경아 · 광주전남, 도남도남어린이집

올해들어 회원들의 재교육을 위해, 두번째로 개최된 강좌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이윤경 공동대표를 강사로 한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의 정책 설명회”였다.

비록 첫번째 강좌 때보다 적은 수의 회원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모든 회원들이 다시 한 번 올해 정책사업들을 되짚어 보면서, 중견 회원들은 많은 의견과 생각을 나누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신입회원들이나 새내기 교사들은 보육정책사업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의 사업방향 중 하나가 99년에는 여러 특수보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준비했다면, 올해는 우리 전통문화의 내용을 보육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연구작업을 통한 보육프로그램 개발로 방향성을 잡았고, 2000년의 정책관련 사업으로 보육교사들의 실태파악과 보육교사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의 사업을 펼치려고 한다.

그 중 특별사업의 하나인 상담사업은 보육현장의 문제해결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권익과 교육권 보장 뿐만 아니라 부모 및 보육시설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

녀 보육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작업을 통해 보육주체들에게 현 보육모습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작업은 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제안이유나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개정작업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제정이래 작년 개정작업의 핵심은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특정계층의 요보호 아동이 아닌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공보육의 대상의 확대와 보육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수납, 지원 하자는 차등보육료의 확대로 구체화시킬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관련제도의 개선작업에서는 자격증제도 도입과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방과후보육의 법적 근거 제정비, 보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법개정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사업을 해왔다.

많은 제안 이유들이 법 개정작업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며, 아직 미완성된 작업이고,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아동의 권리만큼 보육교사들의 주체적 교육권이나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일이나 특수보육(영아, 장애아통합, 방과후 보육 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 정립과 제도적 개선 사업에 대한 토대마련을 위한 현장연구작업과 현장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업들도 있다고 본다.

올바른 정책사업은 보다 나은 보육현장을 가꾸나가며 지켜가는 사업이며, 이는 보육교사들과 보육의 주체들이 앞장서 나가야 할 우리의 일이며 몫이다.



내 아이의 치아는 보석(!)

김태성 · 예치과 원장

아래의 글은 본 기관지의 어린이와 건강란에 원고를 보내주신 고시환 선생님의 좋은소아과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로 좋은 소아과 홈페이지는 <http://gfph.co.kr>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젖니가 잇몸을 뚫고 힘겹게 올라와서 하얗게 보이기 시작할 때의 그 기쁨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는 기쁨이 아닐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이 보석을 자녀가 고이 간직하고, 손상이 가지 않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1. 아이의 치아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모두 치아의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그대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류를 많이 먹게 하여 치아 구석구석에 끼여 있는 사탕 잔사를 제거해 주거나, 칫수를 줄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양치질만 잘하면 어떤 음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2. 효과적이고 손쉬운 아이들 양치질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과적인 방법은 있으나 손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하는 젖니(유치)는 대개 만 2세 반경에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때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시기는 젖을 떼게 되는 생후 12개월이 적당합니다. 이 때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수유에 의

한 광범위한 치아우식의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습관이란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부모님들이 좀 귀찮더라도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교육시키면 대개의 어린이들은 약 2주 정도만으로도 습관이 듭니다. 이때, 어린이혼자에게만 이닦기를 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정교한 손놀림으로 구석구석 닦아낼 수 없어서 시늉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이에는 부모님께서 매일 양치질 후 직접 확인하여 마무리의 양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치 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습관입니다.

3. 불소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출생후 만 13세까지의 어린이의 턱뼈 속에서는 영구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분, 특히 칼슘의 공급은 튼튼한 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불소입니다. 불소는 치아 형성 시기에 치아의 구조속에 섞여 들어가서 치아의 단단하기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불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어린이들이 먹기에 편하게 시럽으로 된 불소를 주는 방법과 치아가 난 직후에 실시하는 불소도포는 인근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예방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 1세 이후에는 수유를 중단할 것과 식이 조절 및 양치 습관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약 6개월에 한번은 치과를 방문해서 유치에 나오는 상태인 잇몸과 치아의 이상유무 등을 정기 검진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대표 감투쓰신 이윤경 선생님을 찾아서.

임미란 · 회원



다음 탐방 순서로 누구를 찔할 건가 물을 때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 그러다 생각났죠. 전에 수련회때나 모임때 뵈었던 든든하고 자신감있는 모습과 열정의 그 사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전부터 궁금하던 차에 으음— 하고 고민하는 척하다가 “이윤경 선생님”이라고 크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 그사람 한국보육교사회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는데 잘됐다 생각합니다. 그사람에 대해 회원들도 궁금한 것도 많을 것이니 이번에 낱알이 한번 캐어 보죠 뭐— 도착한 사무실엔 이른 사무국장장과 개량한복 곱게 채려입은 이윤경 공동대표님이 열심히 3대의 컴퓨터를 켜놓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바쁘네요.

반갑습니다. 평소엔 열정적인 활동력을 가진 선생님을 부럽고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어머세요? 공동대표 되어서 한달이 되었는데 요즘 근황은 어떤지요?

①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낸 평교사이다가 공동대표가 되어 사무실에 출근을 하니 사무실도 낯설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러니 엉덩이도 아프고 실수(파일을 날림)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여러 도움으로 빨리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회를 책임지는 공동대표가 됐는데 참으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어머세요? 지도자가 되어서의 변화나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까?

① 이번에 정책관련 회원교육을 위해 지방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회원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특히 밤상요. (웃음— ^^) 힘든 중에도 애써준 회원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배려하고 대우해줄려는 마음에 감동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도 하게 되었구요. (구체적 아무로 어떤 지역서는 어찌구 저찌구 선물이 뭐니 하며 직접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 어려운 공동대표를 수막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아이들과 현장생활 7년 했어요. 그러면서 교사회의 일을 해보고 싶은 열의가 많

았지만 국공립 교사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제안이 들어왔지요. 우수한 이야기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거 같아요. 정회원 회장님의 제안에 “예, 그러지요” 하고 답했어요. 일을 하고 싶은 열의는 사실 아래서부터 쪽 일을 배워 해나가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실은 거절을 하지 못한 것이 ‘내가 여태까지 한국보육교사회에서 받아왔던 것 생각하면 이제 정말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 (이말은 서은희 선생님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명언입니다)’ 는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웃으면서)그리고 조건도 맞고요. 저 미혼이죠. 그리고 약혼자도 없지요. 물론 부모님이 처음엔 반대를 하셨지만 의미있는 일이니 한번 해봐라 하고 인정을 해주셨지요.

대표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은데 한국보육교사회의 조직적 위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다면 좀 듣고 싶네요.

① (또 웃으며) 총회 자료집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 ^^

자료집의 내용 외에는 더 신경쓰는 부분이 회원이죠. 전 교사회의 필요를 느끼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고 보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싶어요.

그중에 하나가 교육이죠. 지탁연 시절부터 우리 회가 가지고 있던 우리만의 색깔, 교육내용들을 더욱 전문화시켜 그것들을 확산하고 완성된 내용들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것들을 위해 현재 교육연구팀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고 기대가 큼니다.

이제는 일관성있고 전문적인 우리회의 교육내용으로 힘을 가져야 할거 같습니다.

교육의 전문성 강화 부분에 특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는데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① 저의 현장경험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지요. 말하자면 본인의 경험을 통해 어디에서 통증이 오는지를 아는 것이랄까요?

많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여러 어려움들. 예를 들면 노동강도나 교사들의 학습욕구 등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내용들로 요구되어야 할거 같아요. 교사의 질이 보육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니까요.

함께 대표를 맡으신 이기원 선생님과 역할분담이나 조화는 어떻게 됩니까?

① 우린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먹는거 좋아하는 거요. 하하하

그래서 식사 때 늘 즐겁지요. 이기원 대표님은 큰 장점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요. 저의 급한 성격을 잘 컨트롤 해주시지요.

또 그사람은 오랫동안 지탁연 활동을 해서 회원과아과 인간적 친밀도가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체계로써의 일은 서로 분담을 했지요. 주로 사무실 일과 정책관련 일은 제가 하고 이기원 대표님은 지부관리와 단체들의 연대관련 일과 이사회의 주관등을 맡아하시요. 그러나 늘 2주에 한번 집행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함께 결정하는데 늘 보고싶고 그림지요.

공동대표 체제가 어렵습니까? 실제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① 많은 위안과 도움을 받으면서 힘이 됩니다. 처음에 대표로서의 책임감과 나이가 어리다는 중압감등이 땀방에 해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이번에 지부를 돌면서 회원들의 믿음앞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하고 결심을 했지요.

누구나 묻는 이야기이지만 보육에 몸담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① 아주 어릴적 꿈은 유전공학자였죠. 그러다 고등학교때 만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숙식하며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교사였는데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했지요. 집안에서는 일단 이름있는 대학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대 철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 1학년때 자원봉사활동으로 철거촌 공부방에서 7세 이전 아이들과 지내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큰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산동네 아

이들이라고 애들이 놀려요.” 하고 차별을 호소하더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가난한게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 하며 선배들 앞에서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즐거웠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회의 모습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우연히 4학년때 학교 부설 놀이방에 자리가 나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참 좋은데 생활이 안되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학습지 교사를 해볼려고 했어요. 그러다 2주만에 패러치웠어요. 그 상업성과 교육 내용들이 싫어서요. 이후에 진로에 대해 고민 하다가 우연히 영유아보육법 통과와 보육교사 교육원 과정을 신문에서 보고 “앗! 이거다.” 하고 바로 신청하고 1기로 수료했어요. 그 이후로 취업하여 여태까지 일을 한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뭔가에 열중하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떤 환경과 자국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대단히 궁금해 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육할때도 마찬가지죠. 늘 좋은 교육환경을 주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지금의 어른처럼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에 대한 확신이 덜한 거 같아요. 이대표님은 어떠신거 같습니까?

① 일단 저는 봉사라는 말은 대가없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인 생각은 일정부분은 기적이 있는거 같아요. 식구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아이들을 좋아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어머니의 영향도 있는 듯 해요. 어머니가 늘 “이익이 안되더라도 그것이 훌륭한 일이라면 그걸이 옳고 그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실천을 하셨거든요. 그런 영향과 인간이 자라서 만나는 이데올로기 이론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결부되었을 때 힘을 갖게 되는거 같습니다.

어릴적 환경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기억이 있다면요?

① 초등학교시절 저는 부산 촌놈이고 산동네 가난한 아이였어요. 집뒤편 밭이고 산이고 많은 동식물과 함께 살았죠. 학교를 갈 때도 진흙땀이길에 개울을 건너 가야 하는등 훌륭한 자연의 경관을 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뛰어헤쳐서 놀았던 과정이 제게 많

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여유있고 애정을 갖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연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가 보육을 할 때도 아이들의 나들이 활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자연경험이 사물을 다르게 볼수 있을테니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기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현재 켄천 나이인데 아직 미혼이시죠? 왜라고 물어도 되나요?

① 하하하 전 자발적 독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절대적 독신주의자와는 다르죠. 결혼이란 선택사항이고 저는 현재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뿐이죠. 이 기회에 전국에서 적극적인 후보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 (상당히 진지했음, 장난 아님)

종교가 기독교이시네요. 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기도의 소려한 대목 부탁드립니다.

①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했음 좋겠고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이기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후에 역사가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일이 큰 맥락속에서 판단되고 역사를 총괄해서 보시는 분께 OK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요.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시지요.

① 현재의 정회원들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교사회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항기 물물나는 사무실 탁자에서 길고도 짧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동대표가 되어서 켄되었기에 여러 가지 근황과 포부를 주로 듣는 대화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는 내내 전 그의 열정과 의욕에 부러움과 아이고 기죽어 하면서 역시~~ 하는 말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깥놀이 가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7년 후 미래에 와있을 지도 모릅니다.

주혜민 · 서울 남부, 씩씩이어린이집

바깥놀이 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아이들과 점심을 먹고 놀이터로 바깥놀이를 갔습니다. 놀이터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야하는데 골목 담장위로 피어난 봄꽃들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저러 산책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 아이들의 재갈대는 수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싱거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깔깔대는 녀석들의 모습이 더욱 우스워 보이는 햇살 좋은 오후입니다.

놀이터에 들어서자마자 대열은 순식간에 흩어지고 아이들은 그제서야 자유인이 됩니다. 반면 저는 아이들을 한 눈에 보아야할 감시자(로 전락)되지요. 자원활동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파분한 감시자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놀이터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수업이 끝나자 물려드는 초등학교생들때문에 놀이터는 순식간에 혼잡해졌습니다. 그 틈새로 아이들이 제대로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연지야!” 하며 귀에 익은 이름이 들려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지라니?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연지가 맞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고 떨려 왔지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너가 연지니? 나 모르겠어?” 갑작스럽게 다가가 묻는 나를 보며 연지는 어리둥절해 했지요. “이모는 너 아는데.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지는 7년전 꽃동네에 있을 때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었던 꼬마 아이였습니다. 통통한 외모답게(사실은 뚱뚱에 가깝지만) 먹는 것과 연결 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아이였지요. 배추와 무가 어떻게 자라는 지에 대해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은 두번씩 씨를 뿌려 배추와 무가 자란다고 말한 반면, 연지는 “한번씩 씨를 뿌려서 각두기가 커져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꽃돼지’ 연지다운 대답이었죠. 이때까지 연지는 꽃돼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꽃돼지에서 인어공주로 별명이 바뀌었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리기 시간에 나온 모양을 왕관이라고 머리 위에 갖다대고 다니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인어공주에 나오는 사람같은데!” 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당시 만화 영화 인어공주가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연지 하는 말 “인어공주요?”하며 기대에 차 말하는 연지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인어공주가 되었다. 사실은 인어공주에 나오는 문어 ‘우루설라’ 같았거든요. 연지는 정말 자신이 인어공주인 줄 알고 그 종이 왕관을 소중하게 들고 다니며 가끔은 거울을 들여

바깥놀이 가보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7년 후 미래에 와있을 지도 모릅니다.

다 보곤 했지요. 특유의 웃음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이 사실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지에게 비밀입니다. 당시 교사들과 자원활동가 사이에서 만 통하는 연지의 진짜 별명 '문어공주'의 사연이지요. 잠시 옛 추억꺼리를 돼새기자니 기쁨이 앞섭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버린 문어공주 그 아이가 내 앞에서 있다니 타임머신을 타고 7년후 미래에 와있는 듯 합니다. 거침없이 씩씩했던 녀석들의 얼굴이 연지와 함께 막 떠올랐지요. 그때서야 나를 기억했던지 "꽃동네... 큰이모지요."

그렇게 잠시 연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는 이것저것 캐물었지만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녀석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소문으로 들긴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아빠와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인 듯 했습니다. 나와 함께 씩씩이에 가면 인태이모도 볼 수 있으니 같이 가보자고 해도 바쁘다며 친구와 함께 가버렸습니다. "이모! 전 학교 끝나면 바빠요. 친구들과 약속한 게 많거든요." 그렇게 녀석을 보내고 나니 반가운 마음보다 안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이후 저는 버릇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놀이터 가면 두리번거리는 버릇 말이예요.

잘했든 못했든 아이들과 함께한 지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녀석들의 얼굴도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내 맘속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불현 듯 서로 안고 깔깔대는 봄햇살로 다가오기도하고 은밀한 상처로 뜨거운 눈물로도 다가오지요.

"이모 누구예요?"

잠시 멍해있던 내게 주성이가 물어왔습니다.

"응, 너네 선배야."

"선배가 뭔데요?"

"응, 선배는..."

"인제요? 몇학년인데요?"

.....

씩씩이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연지 이야기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재잘거렸습니다.



대구 디딤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01

정민이랑 성현이랑
(둘 다 17개월)
알레리콜레리~

아침인사: 괴성과 함께 두 팔 벌려 뛰어가서 돌이 꼭 껴안는다. 다정한 포포로 끝낸다.
아침제조: 양 손을 꼭 잡고 성현이가 리더한다. '돌이 살짝 손잡고 오른쪽으로 돌아
요~'~
점심시간: 서로의 턱받이를 챙겨주고는 나란히 앉아서 서로 그릇의 것을 먹여준다.
장난치면서
낮잠시간: 한 이불에 나란히 누워 서로 얼굴보고 웃다가 얼굴 돌리고 또다시 보고 웃
는 장난치면서 잠이 든다.



02

똥 누는 스타일도
가지가지

성현: 쿠키형(하루에 3~4번, 고동색 갓 구운 쿠키)
현교: 예측불허형
(어느날 언제쯤일지 모른다. 특히 아침에 집에서 안 누고 온 날은 더욱더)
정민: 의문형
(씻고 나서 기저귀 채울 때 보면 꼭 허벅지에 조금 남아 있다. 아무리 오래 씻어도)
세인: 효녀형(디딤 오자마자 1번, 귀가 5분전 1번)
석진: 효자형(디딤 오자마자 1번, 귀가 10분전 1번, 그것도 많이-양, 냄새)
윤상: 도주형(낮잠 도중 싸고 아무일 없다는 듯 논다)
용빈: 추측형(설사를 팬티에 조금 묻히고 '선생님, 똥 묻은 것 같은데요')
상동: 누드형(쉬, 똥 모두 꼭 하반신 누드로)



03

친구 때리고 나서,
디딤 친구들은

미끄럼틀 뒤에 숨는다. 선생님의 동정을 살피며-송민규
먼저 온다. 더 서럽게-배현철, 최치원, 여형동, 한유리, 이용빈
무슨 일 있었나요? 모른 척-손현교, 신석진, 김현덕
아! 이것 참 곤란한데... 어쩌다가 이런일이-유정민, 여재광
아무말 없이 머리만 긁적-최성현
선생님 있잖아요~. 상세하게 설명-이상동



04

병아리반의 수도

I. 김모 샘 화장실에서 용가하고 나온 뒤
홍샘: 성현아, 또 용가 했나!
II. 황모 샘 소리없는 방구 뒤에
홍샘: 성현아, 또!! 아니네, 그럼 정민이!! 그럼 현교!! 그럼 세인이. 아니 현철이가!!



05

용빈 시리즈

밤 9시 홍샘이 퇴근하며 용빈이랑 함께 나서는데...

드디어 '만물수퍼'를 만나며

용빈: (진지하게) 선생님, 돈 있어요?

홍샘: (황당해서) 그래, 돈 많다! 왜~?

용빈: (당당하게) 선생님, 포켓몬스터 겜 사주세요!!!

어린이화관 놀러 간 날, 모두들 구경하느라 정신없는데,

100원 넣어 작동하는 자동차에 타서 한참을 놀더니

용빈: (당당하게) 선생님! 돈 넣으세요.

둘리만 예쁘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어디선가 아주 크게 '부부웅'

용빈: (씨의 웃으며) 내가 안겼어요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요 방구 꺼서요 여
기까지 온 거예요 (한번 더 '부부웅')

06

애들 눈은
역시 정확해!!!

마음따라 늘 머리모양까지 함께 변화하는 정자샘.

이번 가을에만 한번은 이의정 번개머리, 또 한번은 1cm 길이의 짧은 커트, 며
칠 뒤 염색까지, 그리고 이번엔 1cm 길이의 파마머리...

정자샘: 상동아! 샘 머리 이쁘나?

상동: (웃으며) 예!

그리고 엄마에게, 다 들리는 귓속말로

상동: 엄마는 정자샘 머리 하자마!



07

가원의 빛나간 사랑

다람쥐반 유경이 샘이랑 가원의 인사

유경샘: (양팔을 벌려서) 내가 좋아하는 가원이!

가원: (돌진하며) 내가 좋아하는 유경이 선생님!

어느날 질투에 눈이 먼 홍샘.

홍샘: (다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가원이!

가원: (더욱 다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유경이 선생님! 읊!!! (당황하며) 내가 좋
아하는 미숙이 선생님

홍샘: (불뚱뚱는 질투의 눈빛) 아!



08

똑똑한 용빈이

시청각 활동 '꽃의 세계' 비디오를 제일 열심히 보고 있던 용빈이가

용빈: (큰소리로 꽃이름을 말하다가) 선생님 저거는 무슨 꽃이에요.

황샘: 저 꽃은 수국이야, 수국.

용빈: (놀란 듯) 수국요, 수국은 무슨 국이에요.

황샘: (황당) 국 이름이 아니고, 꽃 이름이 수국이야.

용빈이는 끝까지 무슨 국인지 궁금해 했다.



01

정민이랑 성현이랑
(둘다 17개월).
얼레리플레리~아침인사: 괴성과 함께 두 팔 벌려 뛰어가서 돌이 꼭 껴안는다. 다정한 포포로 칼낸다.
아침제조: 양 손을 꼭 잡고 성현이가 리더한다. '돌이 살짝 손잡고 오른쪽으로 돌아
요~'!점심시간: 서로의 턱반이를 챙겨주고는 나란히 앉아서 서로 그릇의 것을 먹여준다.
장난치면서낮잠시간: 한 이불에 나란히 누워 서로 얼굴보고 웃다가 얼굴 돌리고 또다시 보고 웃
는 장난치면서 잠이 든다.

02

똥 누는 스타일도
가지가지

성현: 쿠키형(하루에 3~4번, 고동색 갓 구운 쿠키)

현교: 예측불허형

(어느날 언제쯤일지 모른다, 특히 아침에 집에서 안 누고 온 날은 더욱더)

정민: 의문형

(씻고 나서 기저귀 채울 때 보면 꼭 허벅지에 조금 남아 있다, 아무리 오래 씻어도)

세인: 효녀형(디딤 오자마자 1번, 귀가 5분전 1번)

석진: 효자형(디딤 오자마자 1번, 귀가 10분전 1번, 그것도 많이 - 양, 냄새)

윤상: 도주형(낮잠 도중 깨고 아무일 없다는 듯 논다)

용빈: 추측형(설사를 팬티에 조금 묻히고 '선생님, 똥 묻은 것 같은데요')

상동: 누드형(쉬, 똥 모두 꼭 하반신 누드로)



03

친구 때리고 나서,
디딤 친구들은

미끄럼틀 뒤에 숨는다. 선생님의 동정을 살피며 - 송민규

먼저 온다. 더 서럽게 - 배현철, 최치원, 여형동, 한유리, 이용빈

무슨 일 있었나요? 모른 척 - 손현교, 신석진, 김현덕

아! 이것 참 곤란한데... 어쩌다가 이런일이 - 유정민, 여재광

아무말 없이 머리만 굴적 - 최성현

선생님 있잖아요~. 상세하게 설명 - 이상동



04

병아리반의 수도

I. 김모 샘 화장실에서 용가하고 나온 뒤

홍샘: 성현아, 또 용가 했나!

II. 황모 샘 소리없는 방구 뒤에

홍샘: 성현아, 또! 아니네, 그럼 정민이! 그럼 현교! 그럼 세인이. 아니 현철이가!!!



05

용빈 시리즈

밤 9시 홍샘이 퇴근하며 용빈이랑 함께 나서는데...

드디어 '만물수퍼'를 만나며

용빈: (진지하게) 선생님, 돈 있어요?

홍샘: (황당해서) 그래, 돈 많다! 왜~?

용빈: (당당하게) 선생님, 포켓몬스터 겜 사주세요!!

어린이회관 놀러 간 날, 모두들 구경하느라 정신없는데,

100원 넣어 작동하는 자동차에 타서 한참을 놀더니

용빈: (당당하게) 선생님! 돈 넣으세요.

둘리반 예쁘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어디선가 아주 크게 '부부웅'

용빈: (씩씩 웃으며) 내가 안켰어요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요. 방구 꺼서요 여
기까지 온 거예요. (한번 더 '부부웅')

06

애들 눈은
역시 정확해!!!

마음따라 늘 머리모양까지 함께 변화하는 정자샘.

이번 겨울에만 한번은 이의정 번개머리, 또 한번은 1cm 길이의 짧은 커트, 머
칠 뒤 염색까지, 그리고 이번엔 1cm 길이의 파마머리...

정자샘: 상동아! 샘 머리 이쁘나?

상동: (웃으며) 예!

그리고 엄마에게, 다 들리는 귓속말로

상동: 엄마는 정자샘 머리 하잖아!!



07

가원의 빛나간 사랑

다람쥐반 유경이 샘이랑 가원의 인사

유경샘: (양팔을 벌려서) 내가 좋아하는 가원이!

가원: (돌진하며) 내가 좋아하는 유경이 선생님!

어느날 질투에 눈이 먼 홍샘.

홍샘: (다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가원이!

가원: (더욱 다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유경이 선생님! 읊!!! (당황하며) 내가 좋아
하는 미숙이 선생님

홍샘: (불뚝되는 질투의 눈빛) 아!



08

독목한 용빈이

시청각 활동 '꽃의 세계' 비디오를 제일 열심히 보고 있던 용빈이가

용빈: (큰소리로 꽃이름을 말하다가) 선생님 저거는 무슨 꽃이에요.

황샘: 저 꽃은 수국이야, 수국.

용빈: (놀란 듯) 수국요. 수국은 무슨 국이에요.

황샘: (황당) 국 이름이 아니고, 꽃 이름이 수국이야.

용빈이는 끝까지 무슨 국인지 궁금해 했다.



육아일기

나현이의 육아일기

-1개월~2개월

김연숙 · 회원



99년 10월 15일 금요일-생후 32일

젖을 물고 나면 우유꼭지를 거부한다. 그래서 수유리듬이 깨진다.

이전 제법 보이니보다. 웅척임을 따라서 눈도 얼굴도 돌아간다. 오늘 코
에서 1cm 가량의 이따만한 코딱지가 나왔다. 꺼낼 때 몸을 움찔하더니
시원한가보다. 왼쪽 귀에서는 냄새가 나서 면봉으로 청소해 주었다.

99년 10월 21일 목요일-생후 38일

얼굴에 빨갛게 좁쌀처럼 잔뜩 돌아났다. 책을 찾아보니 신생아 여드름
이란다. 귀에서는 진물이 나서 결국 약을 발라 주었다. 혼자 목욕시킬 때
에는 물에 몸을 바로 담그게 되니까 놀란다. 그래도 웅척않는다. 처음으
로 자면서 똥을 썼다. 시큼한 냄새가 나는 똥을. 평소와는 다른 똥인 것
같다.

99년 10월 22일 금요일-생후 39일

서서히 젖을 떼야 될텐데 아직도 잘 나온다. 맛은 없어 해도 나현이는 젖
빠는 걸 좋아한다. 하루 한 두세 번 정도만 짜 먹이자. 어제, 오늘은 그네
에서 잠을 잤다. 너무 순해서 재워놓고 잠시 외출할 수 있다. 요즘 자꾸
먹은 걸 조금씩 넘긴다. 아마 가래때문인 것 같다. 오늘부터 일광욕을 시
작했다.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나현이가 워낙 커서 체중으로는 적당하
다. 짜식이 벗겨놓으면 좋아한다.

99년 10월 28일 목요일-생후 45일

오늘 처음 나현이가 용알이를 했다. 눈을 마주치고 말하면 같이 용알거
린다. 엄마 닮아서 한 입(?) 하려나보다. 나현아 너까지 한 주둥이 하면
아빠는 건널 수가 없을거다.예방법종 날짜를 깜빡했다. 오늘 정기검진 가다가 알고서 간염 2차를 맞
추었다.

99년 10월 29일 금요일-생후 46일	키 60cm에 몸무게 5kg 건강하다고 했다. 며칠전에 그네에서 떨어졌는데 울지도 않았다고 물어보았는데 괜찮다고 했다. 이젠 밤에 잠들기 전에 만 많이 보낸다. 두 세 시간은 쉬게 해야 한다. 아마도 젖을 찾는 것 같다. 오늘은 공갈 젖꼭지를 물렸지만 젖과는 아무래도 다른가보다. 젖이 완전히 끊어지면 빈 젖을 물려 채워야겠다.
99년 10월 31일 일요일-생후 48일	어제오늘 새로 먹는 양이 많이 늘었다. 한 번에 160 정도를 먹어야 미소 지으며 혼자 잠이 든다. 가끔 눈을 크게 뜨고 턱을 만다. 젖 빠는게 힘들어 근육경련이 일어나나 보다. 싹뻗 먹고 지금은 잠이 들었다. 공갈 젖꼭지를 젖 먹일 때처럼 가슴에 안고 빨리면, 젖인줄 알고 허겁지겁 물어댄다. 그러나 곧 다시 뱉는다. 잠무정할 때는 젖을 찾아서 안기가 힘들다. 가슴으로 마구 파고든다. 다리짚도 세서 맞으면 아프다.
99년 11월 1일 월요일-생후 49일	우유꼭지를 하나로 통일시켜야겠다. 바뀔 때마다 입이 적응이 안 돼서 해낸다. 일자에, 누크에, 가짜 누크에, 젖꼭지까지 네 개의 꼭지를 빨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엄마처럼 까다롭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은 880ml 먹었다. 태어난지 겨우 한달 보름만에....
99년 11월 2일 화요일-생후 50일	자고 쉴 때면 뒤틀기가 너무 심하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공갈거리면서 뒤틀다가 엄청난 방구를 편다. 트름과 관계가 있는가 며칠 관찰 좀 해야겠다. 열심히 먹다가도 똥이 나올라고 하면 우유꼭지를 혀로 밀어내고는 비장한(?) 얼굴로 힘주기를 한다. 그리고는 다시 먹는다.
99년 11월 4일 목요일-생후 52일	오늘은 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아빠가 나현이를 봤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글세 똥을 세 번이나 봤단다. 나현아! 아빠가 그렇게 미웠니? 똥기저귀 빨래를 시키고 싶었니? 장하다 우리 딸! 많이도 먹었구나. 하루 980ml 이라니?
99년 11월 6일 토요일-생후 54일	기록이다. 오늘 1040ml를 먹었다. 혼자 놀고 혼자 자고 너무너무 착하다. 아침에는 기분이 좋은가보다. 병긱병긱 웃으며 한참을 웅얼이 한다. 잠

99년 11월 11일 목요일-생후 59일	들기 직전에는 마구 먹는다. 빨다가 잠이 들기 때문에 트름도 못하고, 그래서 아침이면 용쓰기가 요란하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걱정도 된다.
99년 11월 12일 금요일-생후 60일	비가 오면 원래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데 어제 종일 보채더니 사고가 났다. 엄마가 조금 편하고자 그냥 눕혀 놓고 우유를 먹이다가 단숨에 150ml를 먹더니 즉시 다 뱉었다. 누운 상태에서 입과 코에서 우유가 솟아나오고 그걸 다시 넘어가 나현이가 숨을 못 쉬고 쉼쉼거렸다. 너무 놀랐다. 잠자기 전에는 그냥 빨고 싶어서 그런 것을 엄마가 미련하게 우유만 잔뜩 먹이다가 큰일 날 뻔했다. 나현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바닥에 눕혀 놓고 안 먹이마.
99년 11월 13일 토요일-생후 61일	다행이 이젠 우유를 잘 먹는다. 아마도 우유에 놀라서 그랬나보다. 말은 못해도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을까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울지도 않았다. 종일 잘 자고 잘 먹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나현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99년 11월 14일 일요일-생후 62일	오늘 또 나현이가 수난을 겪었다. 이번엔 아빠 때문에. 아빠가 목욕을 시키다가 얼굴이 물에 잠긴걸 모르고 등을 씻어주고 있었다. 얼른 고개를 들추니 입과 코에서 물이 주르륵 쏟아졌다. 익사시킬 뻔했다. 그래도 나현이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걱정되고 불안했다. 나현아 그 때문에 아빠는 엄마한테 왕 구박을 받고 다시는 목욕을 안 시키겠다고 하더구나. 아가야! 얼굴 만진다고 울고 그러지 말고 몸이 불편하면 울어라. 졸린데 우유 주면 난리를 치면서 왜 그네에서 떨어지고, 우유가 코에서 솟고, 물에 빠지고, 주사 맞고 그러면 안 우는 거니? 엄마가 걱정돼서 죽겠다.

민수야 힘내

고영미 · 안산,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아오키 미치요코 / 하마다 케이코 그림 / 이영준 옮김 / 안림출판사 / 6,500원

얼마전 장애인 날이었습니다. 내 주변에도 이런 저런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촌동생 한 명이 소아마비인데 그래서 그런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보곤 했습니다.

요즘은 장애아통합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배우고 자랐다면,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아이라면 커서 자기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생긴다고 피켓 들고 시위하러 다니거나 하지는 않겠죠? 장애아와 함께 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수야 힘내"

민수는 몸이 불편합니다. 늘 누워있고, 가는 다리와 흔들리는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 누워있는 민수 옆에 친구가 달려와 나란히 눕습니다.

어린이집에 오는 길에 본 고양이 방석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큰소리로 대답만 합니다.

친구들은 민수에게도 고양이 방석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힘이 모자라서 힘들다. 선생님이 도와 주시고 친구들은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민수는 나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드디어 고양이 방석을 보았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선생님과 아이들은 민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고양이 방석이 있는 들뜰으로 간식을 먹으러 갑니다.

눈물 찍! 콧물 찍!

"민수야 힘내"는 점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꼭 사서 아이들과 함께 보십시오.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다면 더욱 권하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방과후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책을 몇 권 권해드리겠습니다. 방과후반이 있는 어린이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직접 읽어 보고 구입했던 책이라서 자신있게 권합니다.

1. 안데르센 동화 / 마루별 / 9,900원
2. 클람버 강아지 / 길벗어린이 / 5,000원
3. 남작이가 된 스텔리 / 시공주니어 / 4,000원
4. 삼신 할머니와 아이들 / 창작과 비평사 / 6,500원
5. 내가 살던 고향은 / 용진출판 / 5,000원
6. 아버지와 커다란 장화 / 용진출판 / 6,500원
7. 토룡여우 / 사계절 / 6,500원
8. 가자마자 감나무 / 창작과 비평사 / 9,500원
9. 왕따를 잡는 게으름이 육십재의 봉식이 / 우리교육 / 6,500원
10. 앞집 할머니는 마귀할멈 / 시공주니어 / 4,000원



거대한 태풍경보가 내려왔다. 그 태풍은 한반도를 4월 13일날 지나간다고 했고,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몇가지의 지침들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태풍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태풍을 맞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바탕의 회오리를 모는가 싶더니 생각보다 태풍의 피해는 많지 않았다.

이것이 정말 자연현상 이어서 폭풍을 일으키는 회오리바람이 커다란 문제 없이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다면 기뻐할 일이다. 하지만 앞에서 논한 태풍은 선거의 회오리였고, 생각한 것보다 사회적 관심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읽기

4·13 총선을 보며

박상익 · 회원

50%를 겨우 넘는 낮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이 낮은 참여율의 총선에서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짚어볼 수 있었으며 총선의 결과를 통한 이후 한국정치의 발전전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는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발점으로 향후 한국정치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몇가지의 문제제기들이 재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항상 정치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던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와 바로 주체가 되고자 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500년 이상의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건으로 여겨졌으며, 승리한 자들의 논리로 기록되어졌던 한국 정치의 역사를 민중의 역사로 다시 써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이 의미는 역시 총선의 결과로서 증명되었는데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공천 부적격자 후보들 중 80% 이상이 그 지역에서 낙선되었다. 또한 각 정당들은 예상외의 낮은 결과를 보면서 그 원인을 대부분 공천 부적격자들을 각 당의 정치적 이해로 공천시켰다는 것에서 찾으며 서로에게 공천의 잘못된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즉 정치는 음모적인 소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가능하며 시민들은 그들이 옳다고 믿고 실천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총선의 결과가 부각되어지는 것이 '386' 세대의 전면적 등장인데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임종석)의원이다. 그는 80년대 후반 한국을 떠들

씩하게 하던 전대협의장으로 학생운동의 선봉주자였다. 소위 '86' 세대는 80년대 사회, 정치적 모순을 해결하고 독재정권에서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조직화된 반합법적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민족통일을 위한 여러 활동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의 벽을 허물던 바로 주체들이다. 그렇기에 조직화된 힘의 위력을 알고 자기중심이기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아는 이 땅의 새로운 권력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체들의 정치적 등장은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인 혈연, 지연, 학연중심의 정치논리를 본질적으로 거부하면서 당면의 한국정치의 문제들을 민족적, 민주적 관점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전형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의 선전이였다. 이 땅에서 진보당의 의미는 바로 '급진적 혁명주의자'나 '천복 뽕쟁이'로 비쳐지기가 일수였다. 대부분의 진보당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항상 화생양의 역할을 맡아야 했다. 그러기에 총선때나 대통령선거 때마다 진보당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그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진보당이 전국적인 후보를 내어 선전하였고,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길 정도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항상 불순단체의 대명사로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었던 진보당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성숙시키기 위한 국화내에서 또다른 정치세력이 필요함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충분하였고, 아쉽게 이번 총선에서 단 한명도 당선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가능성을 인정 받은 자리였다. 다음 선거에서는 진보당의 당선이 기대되

기도 한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이러한 정치변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정치적 무관심은 권리의 포기나 나타나고, 이 권리의 포기는 책임의 회피로 이어진다. 결국 책임의 회피는 변혁의 장애물로 연결 지어질 것이다.

기대했던 방향으로든 아니든 선거를 끝냈고, 그 결과에 대해 각 정당은 물론 우리들도 겸허할 필요가 있다. 예전의 혼탁선거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선거양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누구 당선되었건 그 당선자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바록 지지던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은 별로 없다.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뿐.

선거는 끝났고 우리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당선자들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일상이 예전의 일상보다는 민주적이고 정직하길 바라면서 다시 4년뒤에 똑같은 과제가 우리 앞에 제시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과제가 놓이길 바란다.

즉 정치는 움모적인 소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가능하며 시민들은 그들이 옳다고 믿고 실천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른발, 왼발은 어린이 문학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임미란 · 회원

현장에서 아이들과 동화를 읽으면서 감동으로 가슴이 뻐 오는걸 느끼신적 있나요?

아니면 고개를 갸웃거리던 기억은요?

아직은 동화에 대해서 특히 비평에 대해서는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흥에 들어가 함께 공부해 보세요. 이 사이트는 크게 동화비평과 어린이 문학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먼저 큰 틀에서는 동화비평과 꼭 읽히고 싶은 책을 연방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어린이책에 대한 고정관념이란 관에서는 우리가 범하는 여러가지 오류들을 지적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분석에서는 일반인이 흔히 기준으로 삼는 어린이 베스트셀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메일링 리스트로 여러가지 정보를 주며 게시판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험과 고충을 나누고 있군요.

그리고 가장 큰 화제를 차지하는 새책 소개에서 이달의 새책을 보면 정그럽고 혐오할 수 있는 곤충의 세계에 대한 서로의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작품으로 "일려라! 개미나라"와 "여우의 전화박스"를 소개 했는데 참 재미있을 것같아 기대가 됩니다.

어? 또 여기는 지역별로 어린이 전문서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소개되어 있군요. 홈페이지가 있는 서점은 바로 연결 될 수도 있구요.

흔히 우리가 책을 살 때 믿을 수 있는 출판사의 책을 선정하게 되는데 어린이 출판사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주)도서출판 보리와 창작과 비평사 등을 소개합니다.

짜편편— 여러분에게 유익한 문화정보도 있습니다. 조금만 맛을 볼까요?

"찾아가는 박물관운영"은 국립 박물관에서 전시전용 차량으로 직접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박물관을"은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공부와 전시실 학습및 문화재 모형만들기를 하며 매주토요일 행사하며 수강료 무료군요. 기간은 10월까지이구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삼성어린이 박물관의 프로그램"으로 마임공연 프랑켄슈타인'과 조각보워기, 풍선아트와 미로로네프공연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후 문화행사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장점은 방정환 선생님이 엮으셨던 [어린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당시 표지사진과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순수창작동화와 외국동화 소개 그리고 동시와 동극, 그림동화등 여러 장르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밤 클릭-클릭-

이탈리아 견학기 3

고은숙 · 성경대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이탈리아의 북부에 위치한 파도바라는 도시에 있는 Camaro Nursery School을 방문했던 날은 1999년 10월 8일, 금요일, 맑은 날이었다. 햇살과 공기마저도 소박하고 평온함을 자아내는 동네에 위치한, 넓디넓은 뜰과 마당, 정원, 나무들도 풍요로웠던 곳임을 기억한다. 역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아침 9시부터 늦은 4시까지 일과를 경험했다.

Host Family에서는 조금 먼 곳이었다(기차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서 약 1시간 거리). 이를 모를 리 없는 Host Mother, Maurizio가 제안을 했다. 우선 Mestrino (내가 2주 일 동안 머물던 지역) Commune(이탈리아의 지방자치행정구 단위)에 함께 출근하고 Commune의 출근시간은 아침 8시~8시 15분 경이었다. 그곳에 있다가 Renata(복지건강분과 사무실 행정보조담당직원)에게 부탁해서 Camaro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자고 하였다. Maurizio는 Mestrino Commune의 사회복지 및 건강서비스 분과의 책임자(chief)였는데 외모도 매력적일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자상하고 진솔하며 신중함을 동시에 지닌 아름다운 specialist였다. Maurizio, 그 여성이 보고싶다... 내가 어떤 기관이나 센터를 찾아갈 때 마다 해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넘겨 듣지 않고 있었음을 생각하니 다시 한 번 아름다운 사람의 한 면모를 배우게 된다.

이번에는 방문했던 보육학교의 운영상황(보육시간 및 근무시간, 구성인원 상황 등), 보육비용, 교사들 급여, 그리고 휴가에 관한 내용을 쓰려고 한다. 물론 이는 방문했던 보육학교의 원장과 2명의 교사, 1명의 요리사 덕분에 이러한 운영체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음을 밝히

두고 싶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난 번 소개했던 보육학교와 대동소이하다. 이는 이탈리아에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공식적, 의무적 프로그램(official programme)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탈리아어로 된 자료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해석이 어려운 상태이고, 다른 예를 들면 1. 14개월된 영아는 각 반에 8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2. 모든 소그룹(학습프로그램 운영시)을 형성하는 단위는 10명을 넘지 못한다, 3.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등이며, 나머지 부분은 해당 보육학교 상황에 맞추어 교사들이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다. Camaro는 지난 번에 소개했던 Regina Elena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곳 원장(director)은 아주 푸근하고 친절하고 젊은 시절 우리들의 어머니, 혹은 마음 좋은 큰언니같은 사람이었다. 역시? 물론 말이 통하지는 않았으나 원장은 최대한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다. 또한 원장은 직접 칭얼대거나 우는 어린 아이들(1세~2세)도 돌보고, 담당 교사가 퇴근하고 나면 그 아동을 데리고 뜰로 나가서 놀고 하루일과를 마치는 준비를 해주기도 했다. 또한 교사들과의 상호교류가 자유롭고 활발하며 친밀감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원장과 교사, 요리사는 모두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고, 보조교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곳에는 자격증을 지닌 10명의 교사와 2명의 요리사가 있었다.

원장 근무시간은 09:00~16:00, 교사 근무시간은 08:30~15:00, 요리사는 08:00~16:00이었으며, 교사 일일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 주당 3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근무시간은 공립, 사립 모두 동일 적용이라고 한다. 그리

고 이곳 Camaro교사들은 07:45~08:30, 15:30~18:30동안 주별, 시간별로 담당하여 1명의 교사가 책임을 지고 아동을 맡는다고 한다. 교사들은 점심시간인 13:30정도에 약 10분여의 tea time을 가질 수 있는 것 외에는 분주한 일과를 맡고 있었다.

아동들은 07:45부터 올 수 있으며 18:30까지 남아있을 수 있고,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는 15:30부터 아동을 데려갈 수 있다.

이 곳은 12개월에서부터 6세(생일 기준)까지의 아동을 맡는데, 당시에는 약 88명의 아동과 10명의 교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0세~3세 담당이 7명, 4~5세 담당이 3명이었다. 아주 어린 아동들(0세~1세)은 8명이고 담당교사는 2명이며 보조교사 1명 혹은 원장이 번갈아 돕는다. 2세 아동은 10명이고 담당교사는 2명이며 보조교사가 1

명이다. 3세 아동은 23명, 4세 아동은 21명, 5세 아동은 26명이고 각각 1명의 교사가 담당하며, 보조교사는 프로그램이나 상황에 따라 돕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5세 아동은 5월에 교사와 함께 이를 동안 소풍(Natural Park: 자연학습공원 같은 곳)을 가는데 이 때 약 20여명의 아동이 참가하고 담당교사는 3명, 보조교사는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때 아동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곳은 0세~2세의 어린 영아들이 많아 교사들이 아동을 돌보거나 아동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일이 힘들어 했는데, 내가 방문했던 그 주가 아동들, 교사들, 부모들이 모두 처음으로 대면하던 시기였던터라 서로를 익숙치 않아 더욱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1세~2세인 아동일 경우에 한해서, 이곳에 온지 3일이 지나면 부모들

Regina Elena 보육비용

(화폐단위:리라)

매 당 연 령	비 용	내 용	비 고
14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50,000(약 455,000원)	월 1회 지불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600,000(약 420,000원)	"	
3,4,5세	250,000(약 175,000원)	"	
"	50,000(약 35,000원)	영어수업을 원하는 아동의 경우 월 1회지불	금액모두 영어교사에게 지불

Carraro 보육비용

(화폐단위:리라)

매 당 연 령	비 용	내 용	비 고
모든아동(0~24개월)	350,000(약 245,000원)	매년	
12개월 이상~	650,000	매월	
16개월이상~24개월	600,000	"	
25개월 이상(3,4,5세)~	200,000(약 140,000원)	매년	
"	250,000	매월	

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는 아마도 낮설음, 부적응 등으로 인해 아동과 교사 모두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통해 나온 대안인 듯 싶었다. 보통 매해 12월이 되면 아동과 교사들이 익숙해져서 다르고 돌보는 일이 쉽다고 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이탈리아 북부, 남부 모두) 올해 아동을 맡기 시작하면 담당교사는 그 아동들이 5,6세가 될 때까지 함께 이동해가는데 그 이유는 그 아동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서로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보육비용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Regina Elena와 비교해서 적어 보였다. 공통점은 1. 특별한 추가비용(extra money)이 없다는 것(아동이 아플 경우는 병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 비용 부담), 2. 형제자매 등 두 아동이 같은 보육학교를 다닐 경우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25개월 이상(3,4,5세)의 아동보육비용 250,000£는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교사들 급여내용을 보면 공립, 사립, 공립과 사립 혼합 형태의 경우 각각 다르다. 근무시간(주 32시간)과 일은 같은 반면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 이탈리아 정부는 이 급여체계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형평성에 맞추어 바꾸는 중 이라고 했다. 제일 낮은 급여순으로 살펴보면, 1. 청소부(cleaner) 2. 요리, 청소부분의 보조원(assistant), 3. 요리사(cook), 4. 교사는 경력 1년 기준에 1,200,000£(약 840,000원)/공립은 1,700,000£(약 1,190,000원)이고 경력 3~4년 정도는 1,500,000£(약 1,050,000원)인데 이는 부족한금액이라고 했다(내게 설명을 해주던 그 교사도 혼자 독립해서 살고 싶지만 재정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부모와 함께 산다고 했다). 5. 원장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약 1,700,000£정도일거라고 했다. 이와 같은 급여체계는 같은 학교(지역, 장소)에 근무했을 경우에만 경력에 따라 2년마다 수당이 인상되며, 6년 이상의 경력을 쌓게 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Padova 지역에는 이미 소개했던 4개 학교끼리만 서로 교

체, 이동이 가능하고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이렇게 지역마다 분리되어 다른 장소로 구분,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지 이동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원장은 임명되는데 각 지역마다 구성된 협의회에서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실시한다고 했다.

토요일은 수업이 없으며 매월 2일은 휴가가 있다. 여름방학(7,8월에 35일)과 겨울방학(크리스마스부터 15일) 동안에도 동일 급여를 받으며, 임신 휴가는 의무이자 권리인데 산전 2달, 산후 3달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때에도 급여는 평소와 같다(same salary). 이 5개월 휴가 이후에 산모가 6개월 휴가(일종의 육아휴가)를 더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산모가 이를 선택하게 되면 첫 달 한달은 이미 가졌던 5개월 휴가 시와 급여가 같고, 그 이후 나머지 5개월은 급여의 30%만을 받을 수 있다. 이 적용은 공립, 사립 모두 해당되며 오직 일하는 여성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나의 Host Mother였던 Maurizio도 이 휴가를 아주 유익하게 누렸다고 했는데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이 휴가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멀기만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 분명한 이상 그리 소원한 것만도 아닌 듯 싶었다.

이상 3회에 걸쳐 미흡하나마 작은 견학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읽어서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현장의 안과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보육교사회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킨더가르텐의 교사들

— 에어찌어(린) Erzieher(in) —

김영명 · 인천, 흥남새 어린이집 원장

(1) 베를린에서 만난 교사들

마리온은 93년부터 시립 킨더가르텐에서 일하고 있으며 29세이다. 5살 난 딸이 있는데 다른 킨더가르텐에 다니고 있다. 튼튼한 체격에 풀바자를 즐겨 입으며 매우 친절하고 아이들한테도 다정한 교사다. 통독 후 통독은 킨더가르텐이 적어지고 서독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통독의 보육교사가 서독으로 많이 왔다고 하는데 마리온도 통독 출신이다. 남편의 직업은 웨이터이며, 통독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전에는 서유럽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휴가 기간이 길어져서 여행할 시간도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한다.

메리는 12년 동안 공대부설 킨더가르텐에서 일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기도 하고 남편이 사별하는 일도 있고 해서 4년간 쉬었다고 하며 휴직 기간까지 총 16년간 이 곳에 있었다. 5년 동안 음악공부를 했는데 재할용품을 가지고 악기를 만드는 일도 배웠다고 하며, 보관하고 있던 재할용품을 이용해서 만든 악기를 보여주었다. 지난 수업에 사용한 악기는 아프리카에서 수집해 왔다고 한다. 너무 오랫동안 교사를 해서 그런지 자신의 그릇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이들을 대하는데 별 의욕이 없어 보인다. 아이들과 수업할 때 음악활동을 주로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음악공부를 했다는 것을 보아도 음악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비앙카는 공대부설 킨더가르텐에서 56년 동안 일했다. 보육교사 생활을 이 곳에서 처음 시작했다. 교사 중 한 명은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고 전체 경력은 8년이라고 한다.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다소 의욕이 없어 보이는 비앙카는 2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곳에서만 22년을 일했다고 한다. 언제 보아도 다정다감한 교사 수장은 7살 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으며 이 곳에서 10년 동안 일했다. 이혼을 해서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

킨더라텐의 교사인 마티나의 꿈은 홍콩에 가서 커리 캐첩을 뿌린 소세지를 파는 것이라고 하며, 화가가 되고 싶다고도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미술활동 하는 것을 즐긴다. 마티나는 41살인데 미혼이며 킨더라텐에서만 8년간 일했고 그 전에는 방과후 보육을 했다. 마티나는 17살에 뮌헨에 혼자 가서 보육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의사를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는 치과의사 보조원이었는데 아버지가 대학에 가기를 원



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 부모님과 마찰 끝에 독립했다고 한다. 부모님과 소식을 끊고 자내다가 2년 전부터 연락을 하고 지낸다. 함께 일하는 남자 교사 스테판은 킨더라텐에서 3년 6개월을 근무했다.

독일에서는 여자 보육교사를 에어쎄어런이라고 부르는데 에어쎄어런은 학교 교사와는 구별되는 말로 보모라는 의미이며, 남자 보육교사는 에어쎄어라고 부른다. 한국의 유아 교사들이 미혼이고 젊은데 비해 베를린에서는 경력이가장 긴 30대나 40대의 기혼 교사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대체로 한국보다는 교사들의 연령이 높아 보였다. 이는 독일의 전체 분위기와는 다른 대도시의 특징일 수도 있으며 과거에는 직장 생활을 단지 가정을 이룰 때까지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여겼으나 점차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도 직업을 갖기를 원하면서(이관우, 1997) 결혼 이후에 직업을 갖는 비율이 한국보다 빨리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킨더라텐의 교사 마티나는 교사들의 근무기간이 그다지 긴 것은 아니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교사들이 아이들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는데 유아들에 대한 학습압력이 심하지 않은 사회의 분위기가 킨더라텐에서의 생활을 여유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또한 아이들과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 세세한 언급을 하는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학문적인 풍토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베를린의 킨더라텐에서는 세분화된 교과 교육이나 영역 활동을 중시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의 교육과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보육교사나 유아교육 교사라는 특정한 직업인의 이미지보다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성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어떤 교사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어

떤 교사는 수수한 아줌마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교사는 무뚝뚝한 군인 같기도 하다.

특정적인 것은 베를린의 보육시설에는 남자 교사가 있다는 점이다. 킨더라텐과 대학부설 두 곳, 방과후 보육을 하는 슬러라텐에 각각 한 두 명의 남자 교사가 있었는데 경력은 3년에서 10년까지였다. 독일에서도 남자 교사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부모들은 여자 교사가 대부분인 보육시설에 남자교사가 있는 것을 선호해서 남자 교사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2) 교사 교육과정

독일에서 보육교사가 되는 교육과정은 주에 따라 다르다. 베를린에서는 초등학교 6년 과정과 실업학교(레알슐레-우리 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4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독일의 다른 연방주 중에는 초등학교 과정이 4년이고 실업학교 과정이 6년인 곳도 있다. 어쨌든 초등학교를 포함한 10년 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적성 확인을 위해 소정의 사전 실습 기간을 거친 후 3년 과정의 보육(유치)교사 전문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전문학교에서 3년 간 이론과 실습교육을 끝내고 나면 국가 시험이 있는데, 구두 시험과 필기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주에 따라서는 실기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탁아연구모임, 9). 졸업 후 1년 간 킨더크리페(영아보육)와 킨더가르텐(유아보육), 호르트(방과후 보육) 등에서 실습을 하면서 자격인정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 과정을 마친 후에 시에 모든 증명서를 첨부해서 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자격증을 받는다. 한국에 비해 실습 기간이 긴 것이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는 13학기까지의 고등교육(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학력고사와

같은 대학자격 입학시험인 아비투어를 거쳐 대학에서 사회교육이나 사회교육학 공부를 하고 나서 보육교사를 하는 것이다. 보통 이 코스를 거친 경우에 원장까지를 포함한 다른 가능성을 가질 수 있으며, 보육(유치)교사 전문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교사만을 할 수 있다.

보육교사가 되고 나서 각각의 전문성을 키우는 보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어떤 교육 과정 참여를 신청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대부설 킨더가르텐은 대학부설이라 그런지 다른 곳보다 실습생이 많다. 전문학교 3학년이면서 1년간 실습을 하는 학생, 대학생이면서 6개월 동안 실습을 하는 학생, 전문학교 1학년이면서 5주간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있었다.

(3) 임금

베를린의 보육시설에서 만난 교사들의 임금은 월 180-210만 원 정도이며, 세금과 연금, 보험 등(임금의 약 40%)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00-130만 원 정도이다. 경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티나는 10년 경력인데 월 2000마르크(1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다른 교사들도 대개 2000-2400마르크를 받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므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마티나의 월급 총액(BRUTTO)은 3500마르크인데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2000마르크(NETTO)를 받게 된다. 독일의 근로자들은 보통 임금 총액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며, 의료서비스나 아동양육에 관련된 보조금, 연금, 주택보조금(저소득인 경우 주택을 쓴 월세에 제공받을 수 있다)과 같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대학까지의 교육도 무료이다.

독일(구 서독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실수령액이 3300M(175만 원) 정도이므로 보육교사의 임금은 다소 낮은 편이다. 독일도 보육교사의 처

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그다지 좋은 편이 못된다. 마티나에게 우리 나라의 교사들이 처우가 안 좋아 이직률이 높다고 하니 자신은 킨더라텐에 8년 동안 있었으나 옮겨보았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옮길 생각이 없다고 한다. 마티나는 킨더라텐의 정부 지원금(운영비의 80%) 중 대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가며, 운영비는 보육료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4)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

킨더가르텐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다양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킨더라텐의 교사는 주 30시간을 일하며, 대학부설 킨더가르텐에서도 주 28시간 등 시간제 근무를 하는 교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시립의 경우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교사가 많았다.

공대부설 킨더가르텐에서 담임교사는 전체 근무 일수의 3분의 2만 맡는 경우가 많으며 담임교사가 안 오는 날은 다른 교사가 담당한다. 그래서 한 그룹을 15명이 맡고 있다고 말하며, 담임교사가 안 나오는 반만을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다. 수전은 일주일에 28시간을 일하며,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의 휴일이 있다.





자유대학부설 킨더가르텐에서는 40시간부터 35시간, 30시간, 20시간 등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다양하다. 킨더가르텐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세 층 중에서 한 층만 운영한다. 교사들은 9시부터 4시까지 일하며 일주일에 몇 번씩 교대로 8시까지 오거나 5시에 퇴근한다.

시립 킨더가르텐에서는 오전 6시~1시(7시간), 7시~3시 30분(7시간 30분), 8시~4시(8시간), 8시 30분~5시(8시간 30분) 등으로 교사의 근무시간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요일 별로 또는 며칠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 오전 6시에 출근한 교사가 1시에 퇴근을 하면 다른 교사가 그 그룹을 맡게되므로 담임교사 외에도 빈 그룹을 맡아주는 교사가 따로 있으며, 이곳에서는 체육 특별활동을 하는 교사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시립 킨더가르텐은 다른 곳보다 일찍 문을 여는데 한국 유학생의 자녀가 다니는 킨더가르텐도 새벽 6시부터 문을 연다. 6시에 오는 아이가 3명 정도 있는데 6시에 오는 아이들은 간호사나 그밖에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의 자녀들이다.

대학부설 킨더가르텐에 비해 시립 킨더가르텐의 교사들의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가 많다. 교사들의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에 교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근무 시간이나 근무일을 조절할 수 있어서 편해 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교사의 근무 시간이 긴 경우가 더 안정적인 여건을 제공한다고 보여졌다. 대학부설 킨더가르텐에서 일하는 실습생도 교사들의 휴일로 인한 빈 그룹을 담당하기 위해 실습생들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녀야 하므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킨더라텐의 교사들은 8시 30분에 출근하여 2시 30분에 퇴근을 하거나 9시에 출근하여 3시에 퇴근을 하는데, 교

사 자산들이 6시간 동안 일하기를 위하여 75% 만을 일한다. 교사가 3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집에 갈 때까지 있다가 4시에 문을 닫고 간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갈 때까지 교사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도 같지만 아이들 수가 11명~13명 정도라 그런지 그다지 곤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킨더라텐의 운영시간이 같은 것은 아니며, 더 늦게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다. 킨더라텐의 운영시간이 3~4시까지 인 경우에 부모가 공부를 하거나 파트타임(베를린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다)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교대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늦게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일찍 출근했던 사람이 퇴근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간다.

교사들의 휴가는 25일에서 30일 정도이며, 독일의 다른 직장인들이 40일간의 휴가를 갖는 것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한다. 근무 연수가 길수록 휴가 일도 많아지며, 시립 킨더가르텐의 교사들은 21~28세는 25일, 29~39세는 29일, 40세 이상은 30일과 같이 나이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킨더가르텐의 경우 학기 중에 교사들의 휴가가 있기도 하였으며, 병가를 내는 교사가 잦은 곳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했다. 보였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교사의 복지가 아이들의 복지와 상충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일정 정도까지는 교사의 복지 수준과 아이들의 복지수준이 함께 향상되었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섰을 때부터는 아이들의 생활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교사들은 독일의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휴가 기간에 여행을 즐겨 다닌다.

(5) 그룹의 구성 (연령, 구성, 교사 대 아동비)

베를린에서 3세~5세 유아는 교사 한 명이 10명~16명의 아이를 돌보며, 방과후 보육에서는 6~10세의 교사 한 명이 15~20명의 초등학생을 돌본다. 킨더라텐이나 슬라라텐과 같이 소규모 보육시설에서는 교사 2명이 13명 정도를 돌보며, 타게스무터라고 불리는 가정 탁아모는 혼자서 3~4명의 영아를 돌본다.

시립 킨더가르텐의 전체 아동 수는 135명이며 교사는 16명이다. 9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영아 그룹과 초등학생과 유아의 혼합연령 4그룹, 호르트 2그룹,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그룹이 한 그룹 있다. 영아 그룹의 인원은 9명이며, 유아 그룹과 통합 보육 그룹은 16명, 호르트 그룹은 15명~20명이다. 교사는 한 번 정해지면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올라간다.

공대부설 킨더가르텐은 8개의 그룹이 있으며, 그 중 한 그룹은 취학 전 아동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아 그룹은 다른 장소에 따로 있다. 대학부설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녀가 다니며, 아이들은 100여명이다. 아이들의 연령은 세 살에서 다섯 살까지이며 한 그룹에는 10~13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한 그룹의 인원이 15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보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자리는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곳은 그래도 재정 사정이 나은 편이어서 그대로 지내왔으나 이미 그룹의 유아 수가 늘어난 킨더가르텐도 여러 곳이 있다고 한다. 교사는 12명이었으며, 실습생이 3명 있었다. 혼합연령으로 그룹이 구성되기는 하나 저 연령에서 고 연령으로 점차적으

표 참관한 시설 그룹 구성

시설명	아동 수	교사인원	그룹 수	그룹인원	그룹 수	시 간
킨더라텐	11명	2명	1개	11명	유아 (2세 1/2~6세)	8시 30분~3시 30분
베를린 공대부설	100명	12명 (실습생 3명)	8개	10~13명 (그룹당 1.5명의 교사)	유아 : 7그룹 (3~5, 6세) 6세 : 1그룹 3세 미만 영아는 다른 장소에서 보육	8시~5시
자유대학 부설	176명	24명	11개	16명	영유아 : 9그룹 (2~6, 7세) Hort : 2그룹 (7~11세)	8시~5시
시립	135명	15명	9개	영아 : 9명 다른 그룹 : 16명	영아 : 2그룹 (6개월~2세) 유아 : 4그룹 (2세 1/2~7세) 호르트 : 2그룹 (7세~10세) 장애아 통합 : 1그룹	6시~5시

로 통합을 하여 한 그룹 내에서 연령차가 크게 나지 않게 조절하였다. 한 그룹의 아이들 사이에 세살 정도의 나이차가 나도록 한 혼합연령이기는 하나 그룹의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도록 혼합을 한 것이다.

자유대학 부설 킨더가르텐의 전체 아동 수는 176명이며, 영유아 그룹이 9개, 호르트그룹이 2개로 전체가 11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2살에서 6.7살까지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혼합연령 그룹이며, 호르트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직전의 유아들과 초등학교생들이 함께 생활한다. 교사는 24명으로 한 그룹 당 1.5명이며, 한 그룹의 아동은 16명이다.

(6)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 (교사의 권한)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들의 권한이 많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시립 킨더가르텐에서는 많은 것을 교사가 결정한다고 하며, 원장과 교사의 관계가 좋다. 그러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원장도 많이 있다고 한다.

공대부설 킨더가르텐에서도 원장과 교사와의 관계는 매우 대등하며, 원장의 독단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각 그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룹간 공조가 필요하거나 전체 행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한 보육시설 내에서도 교사에 따라 성격과 내용 면에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교사가 관심이 있는 영역의 활동을 자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미술에 관심이 있는 교사는 자주 미술 활동을 하며, 음악에 관심이 있는 교사는 음악 활동을 자주 한다. 어떤 교사는 아이들과 자주 박물관에 가거나 인형극을 보러간다. 그러나 활동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어느 시설이든 아이들의 하루의 반나절 정도는 놀이터에서 논다. 부모 회의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있어서 부모의 의견도 그룹을 운

영할 때 반영된다. 예를 들어 낮잠을 재울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룹에 따라서 낮잠을 재우는 그룹과 재우지 않는 그룹이 있기도 하다.

공대부설 킨더가르텐에서는 앞으로 교사가 원해서 8주 이상의 아이를 보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어린 영아를 받는 것은 교사가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보육법이 3세 이상의 유아는 누구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면서 자리가 많이 확충되어 이전보다 아이들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요인도 작용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땃속에 있는 아이까지 미리 신청해야 자리가 날 정도로 보육시설이 부족했던 적도 있다고 한다.

자유대학부설 킨더가르텐의 경우에도 그룹 운영에서 교사의 재량권이 많이 보장된다. 어떤 그룹은 아기자기하게 실내를 꾸며놓는가 하면 어떤 그룹은 거의 아무 것도 붙여놓거나 장식을 하지 않아 썰렁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룹마다 환경구성이 상당히 다른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듯 하다.



국공립 보육시설 민영화 추진에 대하여

글꽃무리

이 글은 천리안 동호회 '보육교사 한마당'에 올라 있는 글입니다. 보육교사 한마당은 천리안에서 daycare를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화지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한 들꽃무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장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영화(현재의 민간 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화가 아니라)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장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한 성균관대학 이영석 교수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시설장들에게 불하의 우선권이 있고, 불하를 받을 경우 대체로 5-10년 지치 20년 상환과 같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민영화가 정말 추진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되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시설의 원장이어서도 아니고, 제 자신이 불하를 받을 능력이 없어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보육에 관여하고, 현재의 수준에서나마 지원을 하게된 데는 그 동안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를 비롯한 수 많은 보육관계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나 국공립이나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영유아와 부모를 위해, 또한 절실한 보육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앞서야지 그나마 지원을 해주던 것의 근거를 모호하게 하는 민영화 움직임에 대

해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유치원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 다른 사람도 아닌 국공립 시설장들이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애로를 겪는 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시의 적절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공립 시설장들의 요구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보육의 한 주체인 교사, 학부모들의 요구나 여론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보건복지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 시설이나 아니냐를 떠나 저는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 보육계의 이곳 저곳에서 바람직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싶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지부에 다녀왔습니다.

이경녀 · 본회 사무국장

3, 4월에는 이윤경 대표를 모시고 지방에 있는 지부들을 방문,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3월에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4월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방을 뒀던 오가는 중에 스산하던 겨울산들은 푸른 빛과 노랑, 분홍 등으로 단장하고 봄산으로 바뀌더군요. 조화로운 자연의 섭리에 새삼 감탄하는 요즈음입니다.

지부 방문 교육을 다니면서 한국보육교사회라는 큰 그릇 속에서 제각각 다른 색깔들로 맛을 내는 지부들을 보며 또 한번 감탄이 나오네요.

부산은 박찬주 지부장을 중심으로 서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는 중간간부, 그리고 서울에서 대표가 온다는 소리에 열 일 제쳐두고 애업고안고 달려오는 회원까지 그 열정들이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정책교육이 끝나고 아기가자람터에서 마련된 뒷풀이에 놓여진 정성어린 반찬들 - 자모까지 동원해서 마련한 집된장찌개, 카레 부침, 보라 생의 잡채, 그리고 신선한 명계(윤경 선생님은 혼자 한 접시를 똑딱) 등등 -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보라생의 입담, 우리 땀에 그날 집에도 못한 연꽃 생, 딸기 생, 향진 생, 홍겨운 밤시간 뒤에 피곤할 텐데도 다음 날 아이들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한 아침상까지 서둘러서 비싸서 엄두도 못내는 갈치가 푸짐 - 작은 부분에서 부산 생들의 정성을 가득 느꼈습니다. 다음날 얼마전에 이사한 포구나무와 도토리 어린이집(공동육아)을 방문했습니다. 세 곳의 어린이집이 다 다른 느낌이 들더군요. 아기가자람터는 70년대 마당있는 산동네 집이 생각나 푸근해지며 떠나오기가 싫었고 새로 이사해서 깔끔하고 넓은 포구나무는 정말 잘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들고 도시에선 상상하기도 힘든 옛날 기와와

기둥이 있는 한옥집 도토리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공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부러움이 앞섰습니다.

보육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치우가 낮은 부산 지역의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부산에서 준비한 선물(찾잔, 핸드폰 줄)까지 챙기고 돌아가는 길이 무겁더군요(절대 선물 땀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막강 부산 선생님들이기에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연이어 방문한 대구에서는 디딤어린이집에서 정책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 역시 형편은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회원들이 있는 어린이집이 제각각 형편이 달라 쏟아져 나오는 고민들이 참 통상(?)했습니다. 24시간에 영아 시설인 디딤에서 장애아 어린이집인 한사랑, 그리고 지역운동을 함께하는 감나무골 어린이집,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 어린이집이 매주 진행하는 장애통합교육까지... 진짜 눈코 뜰새 없이 살아가는 대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원장 겸, 차량기사 겸 주방 선생님까지 겸하는 정자 생이 준비한 푸짐한 밥상을 받으며 1박2일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후 뒷풀이에서는 대구 생들, 그들만의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대화의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하나는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는 말을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엔 얌전해 보이던 유경이 생까지 소리가 찌렁찌렁... 너무 시끄러워 옆집에서 항의오지 않나 걱정스러웠는데 다들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얘기에 집중합니다. 둘째는 어떤 선으로든 얘기가 통합니다. 처음엔 옆사람과 얘기하다가 어느새 대각선

에 앉은 사람끼리 다른 화제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물론 자기의 대각선에 있는 사람과 다른 얘기를 주고 받지요. 엄청나게 청각이 발달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대구 생들은 필요한 얘기만 듣는 특별한 청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셋째로는 손님이 와도 상관없이 얘기 합니다. 옆에 앉아 있던 윤경 선생님은 이 대화 문화에 익숙치 않아 손님으로 갔음에도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오고 오징어 굽고 과일 쥬는 등 자연스럽게 집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했던 것은 앞의 모습들이 절대 술이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에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 많은 제가 관찰자로 뒷풀이에 참석해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일요일), 일요일임에도 24시간 보육을 하느라 아이들과 일찍 일어나 피곤할 텐데 언제 준비했는지 소리 소문도 없이 정자 생이 만들어 온 김밥을 먹고 피곤한 기색없이 아이들과 24시간 보육을 하는 디딤 선생님들을 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4월에는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는 정말 도시가 아담합니다. 몇번을 가도 참 푸근합니다. 고향도 아닌데 말입니다. 택시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광주는 아무리 달려봐도 택시비 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가요?

광주 전남 지부의 중심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글이 지부에서 진행된 교육 내용은 하나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느끼셨죠? 그럼 본문을 들어갈까요?

광주지부는 그야말로 노처녀인 제 복장을 파파 지르는 지부였습니다. 회원들끼리 아기가자람터만 끝을 볼 때는 확실히 높고 정신이 젊어선지 어려선지(?) DDR은 기본이라는 얘기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남편들이 그렇게 외조를 잘 할 줄이야!

뒷풀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천미에 선생님의 남편입니다. 평소에도 미에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

라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도 하는 말이 "부부가 같이 커야지요" 이 한마디에 그 부부의 사랑과 사는 모습이 다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두번째 만난 사람은 말신 선생님 남편이었습니다. 말은 별로 나누지 못했지만 아빠가 오자마자 두 아이가 아빠에게 가서는 말신 선생님이 편안하게 식사와 음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더군요. 더 이상 무어라 말을 하겠습니까? 세번째 만난 사람은 화평 선생님 남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맥주집에서 뒷풀이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풀려해 화평 선생님이 전화를 하니 바로 모시러(?) 오더군요. 마지막으로는 정미 선생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미 정미 선생님의 남편 자랑 - 서울을 때마다 꼭 배웅을 나온다는 등, 밤에 자기는 자고 남편이 아이 씻기고 재우고 한다는 등 이사회 때마다 꼭 한가지씩은 얘기 한답니다. 은 익히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았지만 실제 정미 선생님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우리를 편안하게 여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가 있는데도 태연스럽게 담담 돌는 말을 정미 선생님에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담담부부의 한계를 넘은 듯 합니다. 선배들의 이런 남편들만 봐서 영금 선생님이나 미영 선생님은 결혼하기 조금 꺼다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주지부의 단란한 모습을 뒤로 하고 우리는 밤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3개의 지부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절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그에 맞는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보육교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느끼기도 했구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가능한 아이들과 즐겁게 살아가려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제게는 또 다른 가르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3, 4월이었습니다.

'00한국보육교사회 현장연구 공모 안내

2000년 보육교사 현장연구 공모전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연구·실천 작업을 지원, 격려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현장 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육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교사들의 연구, 실천내용을 발굴하여 확산하고, 현장의 요구와 재안을 보육제도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보육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 치

한국보육교사회

모 집 대 상

보육교사

공 모 부 문

- 보육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교사의 연구·실천 내용(주제에 제한 없음)
- 보육교사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자격제도, 재교육, 교사 처우 등)

상 금

- 연구하는 교사상: 상금 30만원(1명)
- 실천하는 교사상: 상금 30만원(1명)
- 발전하는 보육상: 상금 30만원(1명)
- 장려상: 상금 10만원(약간 명)

응 모 방 법

- 신청 접수: 한국보육교사회
- 접수기간: 2000년 9월~2000년 12월 15일까지
- 접수 및 문의처: 한국보육교사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3층
전화 02-2275-8505 전송 02-2275-8506
접수는 우편으로 하고 마감 당일 소인 유효함.

*심사결과 2001년 1월 중 개별통보합니다.

*재출판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본회가 소유합니다.

*최우수 및 발표회는 2001년 본회 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림

한국보육교사회 2000년 열린 강좌

1 오감 살리기와 조형놀이 워크숍

장승각선생님의 주제강연과 조형놀이 실제, 그리고 지난 6개월 간 진행하며 정리된 미술소모임의 오감을 통한 조형놀이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시: 6월 10일(토) 오후 4시~ 11일(일) 오후 12시

장소: 합정동 밀알의 집

참가인원: 20명 이하

참가비: 4만원

문의처: 02-2275-8505 (담당: 이경녀)

일정표

날짜 / 시간	첫째날(6/10)	둘째날(6/11)
오전 8:00~9:00		아침 식사
9:00~10:50		사례발표2 - 음악듣고 표현하기, 우리손으로 꾸미요, 소리듣고 그리 기, 바람을 느껴요
11:00~12:00		자유토론
오후 3:40~4:00	집수	
4:00~4:30	슬라이드 상영 (어깨동무어린이집의 졸업여행)	
4:30~6:00	주제강연(장승각)	
6:00~7:00	저녁식사	
7:10~8:00	사례 발표1 - 철쭉을 신나게 갖고 놀아요, 밀가루 반죽하기	
8:10~11:00	실제 활동 - 그림자로 이미지 만들기	
11:10	반별 모임 및 취침	



2 교사가 미리 체험하는 여름돌살이

아이들과 여름돌살이(캠프)를 떠나기 전, 교사가 미리 느껴보는 특별한 즐거움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여름돌살이 활동을 소개합니다.

일시: 6월 3일 ~ 6월 4일

장소: 조령산자연휴양림 (소요 예상 시간: 3시간)

출발시간: 오전 7시 30분

참가비: 5만원 (교통비 포함)

대상: 보육교사 (20명 선착순)

준비물: 칼(나무를 깎기위한), 3일 점심도시락, 필기도구, 개인 세면도구

문의처: 02-2275-8505 (담당: 이정녀)

일정표

날짜 / 시간	첫째날(6/3)
오전 7:30	집결, 조령산으로 출발
11:00~12:00	도착 및 조령산행
12:00~13:00	점심식사
13:10~18:00	- 목탈 쌓아보기, 계곡물에 들어가 수생 생물 관찰하기, 지명에 얽힌 전설 이야기, 박물관 견학(산에 박물관이 있다고 함), 솥대만들 나무 가지 굵기 - KBS드라마 왕건 촬영장 견학 (세트장이 박물관보다 더 실감난다고 함)
18:00~19:00	저녁식사
19:10~22:00	- 답사 지도 그리기, 우리어린이집에 맞는 돌살이 프로그램 계획하기, 솥대 만들기, 불피워 감자 구워 먹기, 방벌로 옛이야기 들려주기
22:00~	취침
	둘째날(6/4)
7:00~8:00	기상 및 아침 산책
8:00~9:00	아침식사 및 짐정리
9:30~11:00	석탄 박물관 견학
11:00~	집으로 출발, 돌아오면서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



1 보육교사 종합취업 지원 사업

한국보육교사협회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으로 "보육교사 종합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2000년 1년동안 시설과 종사자를 연결하는 구인·구직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6월 말에는 창업설명회와 취업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십시오.

문 의: 2271-1548(담당자: 구미진)

2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연극

"날개를 훔친 도둑"

세상의 모든 물건을 훔치고 싶은 도둑이 들어간 천사의 나라. 도둑과 천사가 만난다는 상상을 통해 대화의 소중함과 잘못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중함을 이야기 합니다.

일 시: 5월 2일 ~ 31일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토.일.공휴일: 오후 12시30분, 2시)

장 소: 샘터과랑새극장

관 연: 극단 사다리

문 의: 743-1683, 763-8969

3 단오맞이 제 6회 어린이 풍물한마당

주 최: 문화마당(아리수) 유아교육국악연구회

후 원: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원

일 시: 2000년 6월 4일(일) 오후 1시~5시

장 소: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

내 용: 유치부, 초등부, 국악(풍물) 등 지랑마당, 사자춤, 사물놀이, 태권놀이, 민속놀이, 민속 페이스페인팅, 강강술래, 대동난장 등

4 인도·네팔·티베트 희귀민속문화특별전

일 시: 4월 10~8월 31일

장 소: 자구촌민속박물관 인도, 네팔, 티베트 전시관

내 용: 인도, 네팔, 티베트 민속유물 중 엄선된 300여종

목재민속품 - 당채무늬, 공작문양 창문, 용문조각 항아리, 휴대용 풀무 등

금속제민속품 - 네팔 힌두교의 각종 신상, 청동제 의식용구 등

종교의식 및 민속유물 - 네팔 탱화, 인도가죽 방패 등

각종 민속유물

문 의: 02-773-9590~1, 8848



5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강좌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일시: 5월 3일~7월 5일(주1회 총 10강) 매주 수요일 오후 3시~5시

특강 1회, 현장체험 1회(토)

장소: 경실련 강당

대상: 어린이 환경에 관심있는 유·초등교사, 관련학과 학생, 관련 단체 담당자, 학부모 등

수강료: 일반 4만원, 학생·시민단체 회원 3만원

문의: 02-771-0355, <http://envikid.ccej.or.kr>

- 1강 (5/ 3) -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어린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
- 2강 (5/10) - 인권은 투표권과 함께 시작되는가?
- 3강 (5/17) - 물이 썩으면 어린 물고기가 먼저 죽는다.
- 4강 (5/24) - 양호교사 한 사람에 내맡겨진 어린이 건강
- 5강 (5/31) -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남의 아이가 당신의 며느리가 된다
- 6강 (6/ 7) - 씨랜드와 인현동 사고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 7강 (6/14) - 달콤한 담배연기 속에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 8강 (6/21) - 밤새지 마란 말이야(음란물을 보는 점잖은 아버지의 훈계)
- 9강 (6/28) - 빌딩 숲 콘크리트 바닥을 배회하는 아이들
- 10강 (7/5) - 어린이에게 열린 사회환경, 자연 환경을...

6 전통 도자기 교실

세종전통교육개발원에서는 옛고려시대 가마터였던 가창골 여주 관공농원에서 직접 실습하는 도자기 교실을 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자기교실 교육장은 야외 실습장, 가마 견학, 자연체험실습 등의 기호가 주어진다.

고적답사: 세종대왕 영능, 목아 박물관, 신록사

도예교실: 흙발기, 물레 돌려 작품 만들기, 자유롭게 만들기, 그리기

체육대회(레크리에이션)

문의: 0331-286-5061, 0337-883-3401



■ 보육정책위 회의

3월 7일 보육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주과 보육정책회의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보육사업 안내의 내용 중 방학, 산업재해보험, 보육교사 대체 인력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종사자 건강검진, 민간시설 근무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원, 유아보육의 활성화,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서를 제출기로 하였습니다.

■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여성단체관계자 간담회

3월 10일, 여성특위에서 여성단체관계자 간담회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발도르프 연구모임

3월 11일 발도르프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 3.8 여성대회 참가

3월 12일에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3.8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여성상 수상, 디딤돌 걸림돌 발표, 여성문화제 수상작 발표 등이 진행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서울 남부의 회원들과 수원지회 회원들, 그리고 멀리 부산지부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자원활동가로 결합실외마당 중 어린이 놀이터를 진행했습니다.

■ “보육교사 자격관리체계 개선방향” 간담회

3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교사자격관리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제1차 이사회 및 이사 강화훈련프로그램

3월 18-19일에 대구 디딤어린이집에서 2000년 제1차 이사회 및 이사강화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입장, 2000년 보육사업안내

에 대한 본 회의 의견 등이었으며, 이사강화훈련프로그램에서는 이사회와 이사의 역할에 대한 점검,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점검, 컴퓨터 나들이, 프로젝트 기획 등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 총선연대 유권자 약속 227만명 서명 운동

3월 21일 총선연대에서 실시하는 유권자약속 서명 운동에 참가, 강남터미널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 제3차 보육정책위 회의

3월 21일 보육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 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 회의

3월 22일 여연 복지위 회의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여성단체연합 임원회의

3월 28일 여연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총선연대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이기원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 여성유권자의 날 선포식

깨끗한 선거, 부패정치 추방을 위한 여성유권자 선언 기자회견이 3월 31일 YWCA연합 4층강당에서 있었습니다.

■ 낙선명단 발표 기자회견 및 낙선운동 결의대회

4월 3일 정동이벤트홀에서 82명의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22명의 집중낙선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낙선운동을 결의하며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이 있었습니다. 본 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경녀 사무국장, 구미진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소식과소식

유권자 축제 한마당

4월 8일 대학로에서는 유권자 축제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여러 가수들이 출연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서울지부의 황호정, 박인혜, 정미영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낙선운동 집회

4월 11일 종로에서 낙선운동집회가 있었습니다. 종로는 낙선운동 집중지역으로 이종찬씨가 후보로 있는 지역입니다. 본 회에서는 이경녀 사무국장과 구미진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 열원 유권자 혁명 촛불대행진

4월 12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명동성당에서 총선연대의 마지막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간의 총선연대활동을 정리하며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촛불행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회에서는 이윤경 대표와 이경녀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발도르프 연구모임

4월 8일 발도르프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윤선영 선생님댁에서 집들이 겸해서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감각교육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제 4차 보육정책위 회의

지난 4월 4일에 4차 보육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공립 민영화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제5차 보육정책위 회의

4월 21일에 5차 보육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본 회의 중요 사업인 보육교사 실태조사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소장인 이은애 선생님이 함께했습니다.

보육교사종합취업지원사업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상적인 구인구직연계사업과 취업지원교육사업을 실시했습니다. 3월에는 14, 16, 17일에는 국악 및 전래놀이 강좌, 23, 24, 30, 31일에는 컴퓨터 교육강좌, 4월 6, 7, 13, 14일에는 신체놀이 강좌, 20, 21, 27, 28일에는 놀이감제작 등의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를 해 주신 고정미, 서상욱, 한정혜, 유홍영, 노수산, 박은하, 고숙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

4월 27일 여성특위에서 개최한 여성정책담당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교육연구팀

3월부터 시작한 교육연구팀이 벌써 3번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바울수준교육과정연구소의 문재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팀원은 부산의 최정임, 광주의 김영금, 인천의 고정미, 수원시의 강영신, 윤금주, 서울의 이상욱, 서은희 부회장 등입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청주로 내려가 공부했으며 20일에는 수원에서 1박2일로 진행했습니다.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 4월 15일에 제2차 회원강좌로 '2000년 한국보육교사회 정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1차 회원 강좌 때 보다는 회원들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여한 회원들의 진지한 모습속에서 교사회에 대한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도담도담어린이집이 벌써 10살이 되었네요. 4월 9일 개원 기념일 행사를 했거든요. 일본 '희망의 문 보육소' 선생님들, 아이들, 부모님들, 가족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도담도담어린이집이 무궁

무진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5월 교사의 날에 야외회를 갑니다. 날자는요? 5월 14일이요 어디로 가나요?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죽세공예단지로 가지요. 그 날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과 더불어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또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사 스스로 자축하는 자리와 회원들의 결속을 다질 예정입니다.

· 5월에는 광주, 전남 소식지 '배꼽이' 56월호가 발행됩니다.

· 그동안 한국보육교사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한·일 보육교류가 몇 년 전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본쪽에서 시설과 시설간의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있어 99년 광주지역 두 곳의 시설(도담도담어린이집, 발산공부방)의 교사 3명이 일본 오오사가 지역의 희망의 문과 성애원에 교사 연수를 다녀왔으며, 현재는 광주 어린이집을 포함한 세 시설의 대표로 구성된 한·일 보육교류협의회가 이후 결합 방도를 고민 중입니다.

일본에서도 한·일보육교류협의회가 있으며 현재 교류의 가장 큰 내용은 교사교류 연수입니다. 앞으로는 양국의 보육교류협의회의의 활동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올해 교류의 구체적인 일정은 5월에 일본지역 보육관계자가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에 광주 방문과 10월 교사교류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구지부(준)

· 3월 25일 1박2일로 "보육운동의 역사와 한국보육교사회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1박2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4월 20일에는 "보육정책의 변화과정 - 대구의 보육정책"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매월 통합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봄"을 주제로 야외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4월에는 "서로를 이해해요"라는 주제로 주1회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5월 5일에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하는 "유아통합한마당"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부

· 4월 10일 부산총선연대의 정치개혁열원 유권자 혁명 촛불대행진에 참가했습니다.

· 안동대에서 강의 하시는 편해문(동무동무 씨동무

가자가자 감나무'의 저자) 선생님과 2주에 한 번 전래 놀이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 일하는 여성의 집 종합복지도우미 강좌에 5명의 회원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 4월 20일 신입회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올해 부산지부의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회원은 최은정, 홍정미, 임정숙, 정현옥, 김은령, 이정인, 이은정입니다.

·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2000가슴펴고 어깨걸고'에 유아마당을 진행합니다.

· 3월 5일 부산진구의 공동육아어린이집 쌍쌍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서울지부

· 신입회원의 날

4월 1일 서울지부의 신입회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모두 11명의 신입회원이 참석했으며 보육교사회 알기, 보육교사로서의 나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수호천사 만나기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지부 미술소모임

정회원과 자료회원을 대상으로 "노수산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술소모임"을 시작합니다. 월1회로 약 8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아동미술에 대한 이론 공부와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실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남부지회

· 5월 7일 컴퓨터 실무 교육을 합니다.(문서 작성 및 인터넷, 통신에 관해)

타 지회 회원도 환영합니다.

· 월 18일 박정애 선생님을 모시고 심성훈련을 무사히 잘 끝마쳤습니다. 남부지회 회원들이 서로에게 한발자국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부지회

· 5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 어깨동무 어린이집에서 박정애 상담팀장을 모시고 서부지회회원들의 친목의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부지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지부

· 지부 소식지 '강아지 똥'이 소모임활동과 회원 소식



소식과소식

을 담아 2월부터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 3월 15일에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8여성대회'에 풍물소모임 메나리가 여성노동자들과 연합풍물공연을 했습니다.

· 3월 회원의 날과 4월 회원의 날을 많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쳤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6시 정각에 시작과 생일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함께 나누기, 함께 배워봅시다 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 3월 25일 9주기 세상둥이 추모제가 나래어린이집(새싹, 새싹둥이 통합)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소박하게 준비되어진 추모제는 지역에서의 보육사업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 지부수익사업으로 두차례에 걸쳐 딸기행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숙희, 이연순, 최은하 선생님을 비롯해 전체회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4월 14일부터 신입회원교육이 있었습니다. 모두 3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졸업식은 5월 회워느이 날 선배 교사들의 축하속에 치워질 예정입니다. 올해의 신입회원은 김용미, 현희정, 권은희, 이은경, 박정임, 송아리, 김송빈 선생님들입니다.

· 희망세상어린이집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고 있는 협동조합어린이집이 지난 4월 24일 착공식을 했습니다.

· 여성기금마련 바자회에 4월 30일 인천지부가 참여했습니다.

수원지회

· 수원시와 2000년 청소년 아동 한마당 행사 위원회 주최로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 전래놀이 마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총선연대 활동을 했습니다.

· "성남 남부 경찰서 인권유린 및 성희롱 항의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결혼을 축하합니다.

· 지난 4월 16일에 인천의 이경미 선생님이 전북 정읍

에서 결혼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성격처럼 시원시원한 결혼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 5월 14일에 새터어린이집의 박은하 선생님이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는 얼굴을 잘 못 볼듯 한데 미리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 부산의 전리라 선생님이 5월 20일에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시구요, 신혼 살림은 경기도 이천에서 예쁘게 꾸민다고 합니다.

· 5월 20일 수원의 이지윤 선생님이 결혼을 합니다. 또한 명의 개피가 가는군요. 행복하세요.

축하합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연구원이신 서정은 선생님이 임신 5개월로 들어셨습니다. 둘째 아기도 오빠를 닮아 톡톡뽕뽕하고 구김없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 수원의 윤금주 선생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진구지회장인 박은영 선생님이 예쁜 딸을 순산했습니다. 지회장하느라 바빠텐데 언제 딸까지.....(?) 축하합니다.

· 3월 18일에 서울 서부지회의 김경미 선생님이 수중 분만으로 예쁜 아가를 출산했습니다. 수중분만이라는 예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엄마의 도전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 지난 4월 5일 서울 서부지회의 서미연 선생님이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가를 낳았답니다. 엄마의 욕구술 목소리를 담은, 멋진 여성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 인천 희망세상의 김정숙선생님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 나래어린이집의 교사였던 박은정 선생님이 아들쌍둥이를 낳았습니다.

· 안산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지도원으로 근무하던 박금희 선생님이 이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다소 편한 복장을 즐겨하다보니 어린이집을 찾는 손님이 원장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편한 복

장만큼이나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원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산의 고양미 선생님이 만학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올 3월부터 안산공과대학 사회 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이군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공부되길 기원합니다.

· 인천의 고정미선생님이 안산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 한학기동안 국악교육을 맡으셨습니다.

· 강화로 내려가 신선처럼(?) 자내는 임미란 선생님이 예쁜 집을 남편과 함께 손수 지어 4월 말에 이사했습니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가루비누 들고 집들이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 서울 서부지회에 신입회원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어깨동무 어린이집의 정선진, 이승현, 최현희, 남근영 선생님과 대림1동어린이집의 노애경, 지수민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활발한 회 활동으로 한국보육교사회의 전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외비 내셨습니다. (3월 - 4월)

(서울지부 - 북부지회) 2월 일부

(서울지부 - 남부지회) 4월 완납

(서울지부 - 서부지회) 2월 일부

(인천지부) 4월 완납

(광주전남지부) 3월 완납

(부산지부) 3월 완납

(수원지회) 2월 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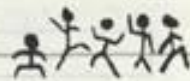
(기타) 유정은 12만원, 권혜진 10만원, 황미혜 3만원, 이명숙 6만원, 유필너, 고양미 2만원

(자료회원) 정은진, 오경숙, 김정숙, 김지선, 김영숙, 새터어린이집, 장진승, 양평1동어린이집, 권미정, 이순희, 중림어린이집, 황인희, 이춘미, 임윤화, 고승은, 박미숙

(후원해주셨습니다) 박정애 1만원, 최현숙 50만원, 부산지부 5만원, 대구지부 3만원, 광주지부 7만원

본외 3 · 4월 활동일지

3월	4일	교육연구팀회의
	7일	보육정책위 회의
	11일	발도르프 모임
	11일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여성단체 관계자 간담회 참석
	12일	2000년 3.8 여성대회
	13일	확대집행위
	14일	보육교사자격관리체계 개선방향 간담회 참석
	14, 16, 17일	보육교사취업지원 교육사업 - 국악 및 전래놀이 제1차 이사회 및 지도력강화훈련프로그램
	18-19일	보육정책위 회의
	21일	총선연대 유권자약속 27만명 서명운동
	23, 24, 30, 31일	보육교사취업지원교육 - 컴퓨터 교육
	24일	부산지부 방문, 정책 교육
	25일	대구지부(준) 방문, 정책 교육
	28일	어연 임원회의
	31일	확대집행위
		김덕환 선생님 후원회
4월	1일	교육연구팀
	3일	낙선명단 발표 기자회견 및 낙선운동 결의대회
	6, 7, 13, 14일	보육교사취업지원교육 - 신채놀이
	8일	발도르프모임
		총선연대 유권자 축제 한마당
	11일	총선연대 낙선운동 집회
	12일	확대 집행위
	15일	광주전남지부 방문, 정책 교육
	20, 21, 27, 28일	보육교사취업지원교육 - 놀잇감제작
	21일	보육정책위
	22일	미술소모임
	26일	확대집행위
	27일	경기지부 추진위 회의
		여성정책전담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 참석
	29일	인천지부 사무실 방문
	29-30일	교육연구팀



편집부에서

올해들어 자료회원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우리네 아이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리겠지요. 가끔 내용이 너무 좋다며 자료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회원들이 보내주는 소중한 글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훌륭한 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올 1/2월호부터 연재한 이탈리아 건학기가 이번호로 마감합니다. 새로 연구원이 되시면서 바쁜 중에도 이탈리아의 보육 현실을 소개해 주신 고은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평생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회원회비 12만원과 지부, 지회별 일정 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증양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 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양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우리네 아이들」 정기 구독료 30,000원(6개월 구독료 16,000원)을 납부하시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내외 교육,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방법

- 자료 회원은 증양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 정회원은 증양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 → 지부, 지회로 연결
- 지부, 지회의 가입 절차에 따름

승금구좌: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분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 전리안, 나우누리 KDTA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전리안 KDIRC